

詩文을 통한 昌慶宮의 장소 정체성 강화 방안 연구

- 한문학의 문화·관광콘텐츠 활용 가능성 -

구슬아*

- I. 문제제기
- II.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 및 관련 작품 개관
- III.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 강화 방안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한문학이 최상위 문화와 결합된 결과물인 궁궐(宮闕) 관련 시문(詩文)을 통해 한문학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조선의 4대궁궐 가운데 관람객 수가 가장 적은 창경궁(昌慶宮)을 대상으로 한 시문을 분석하여 ‘효(孝)의 궁궐’이자 ‘내전(內殿)의 다양한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궁궐’이라는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을 강화·보완할 구체적인 전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공간, 인간의 경험, 경험에 따른 인식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장소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는 역사 기록과 시문의 상보적 검토가 필요하다.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과 관련한 문화·관광콘텐츠와 시문을 개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구체적 스토리텔링과 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효의 궁궐’ 이면에 검약(儉約)과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이를 문화해설사의 전문화된 해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 ‘내전 이야기’의 확대 개발을 위해 다른 궁궐과 달리 창경궁에는 세자의 강학과 관련한 전각이 많다는 특징을 강조하고, 이를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코스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마련과 같은 관람객 ‘타게팅’ 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셋째, 환취정을 예시로 창경궁 내 랜드마크를 우선복원하고 이를 다른 자연 경관 테마와 연계함으로써 창경궁의 관광콘텐츠를 보완할 수 있다.

핵심어: 창경궁(昌慶宮), 문화콘텐츠, 관광콘텐츠, 장소 정체성, 한문학

1. 문제제기

한문학은 사대부와 임금을 중심으로 한 상층문화가 발현된 결과이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한문학은 접근과 이해가 다소 어려우며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여겨진다. 한문학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는 한문학자들의 고심처 역시 이와 같다. 즉 한문학이 과거에 존재했던 상층문화의 집적체라는 의미를 넘어,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현대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작품 안에서 시공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한국한문학회는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한국 한문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이라는 기획주제를 통해 한문학이 문화콘텐츠의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¹⁾ 하지만 다루어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전(傳), 야담, 연행록과 같은 서사장르가 아니라면 스토리텔링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사장르를 넘어선 한문학 장르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 연구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²⁾

1)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모두 『한국한문학연구』 제35집에 수록되었다. 이 기획주제하에 수록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고미숙, 「열하일기, 그 “매끄러운 공간” 속으로 - 열하일기와 애니메이션의 마주침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김용옥, 「기조발제: 한문 해석 인식론(認識論)과 한국 문화콘텐츠의 발양」; 남성우, 「역사 다큐멘터리와 한문학의 만남 - KBS 『역사스페셜』을 중심으로」; 신익철, 「야담 문학의 활용과 TV 드라마, 영화의 창조적 상상력 - 『어우야담』과 <왕의 여자>, <황진이>의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안영동, 「영화, TV드라마 사극과 한문학」; 이승수, 「한문학과 다큐멘터리의 접점 가능성 탐색 - 연행로(燕行路)를 중심으로」; 이정호, 「옛 날이야기에서 애니메이션 소재 찾기」; 이지양, 「한문학에 나타난 우리 음악과 무용」; 최영미, 「어려운 국악, 절반의 책임은 한문」.

본고는 한문학이 최상위 문화와 결합된 결과물인 궁궐(宮闕) 관련 시문(詩文)을 통해 위와 같은 선행연구자들의 고민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정통한문학 장르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궁궐이라는 장소(場所, place)는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임금이 머물고 국가의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중심으로, 궁궐과 관계된 인물들의 인식과 작품 속에는 보편적 삶의 모습과 애환이 담겨있다.³⁾ ‘장소’란 특정한 공간의 자연적·문화적 요소들이 나름의 질서를 이루고 통합된 결과라는 의미로서, 각 장소는 다른 장소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⁴⁾ 그 고유한 질서에 대해 인문주의 지리학자⁵⁾ 에드워드 켈프는 ‘장소 정체성(=장소성, identity of place)’이라고 명명하고 인물의 경험과 기억, 시간, 상징적 사건이나 심미적 의식 등이 결합하면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그 장소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정의하였다. 또 장소와 관련된 본질적 경험과 특성을 담고 있는 지식을 통해 그 장소의 진정한 의미가 창조되고 보호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⁶⁾ 이때 장소 정체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물리적 환경(외관), 인간의 활동, 의미

2) 신동훈 선생님은 문화콘텐츠를 연구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사업가적 정체성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전통문화를 제대로 복원하는 데 집중하며 ‘학자적 정체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자료를 발굴하고 그 특성과 의미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보편적인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학자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동훈, 『민속과 문화원형, 그리고 콘텐츠-문화산업 시대, 민속학자의 자리』, 『한국민속학』 제43집, 한국민속학회, 2006, 272~275면.

3) 안장리, 『영조(英祖) 궁궐 인식의 특징』, 『정신문화』 제10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33~35면.

4) 장소는 ‘공간’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간’이 일종의 ‘용기(用器)’로서 인간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차원의 개념이라면, ‘장소’는 그 속에 있는 인간 주체(행위자)의 역할과 경험이 보다 강조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앙리 르페브르 저,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예코리브르, 2011, 72면; 류지석 외,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소명출판, 2013, 166~167면 참고. ‘장소’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에드워드 켈프 저,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2쇄), 논형, 2008, 28면.

5) 대표적인 인문주의 지리학자로 이-푸 투안과 에드워드 켈프를 들 수 있다. 투안은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과 방법론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류학·건축학·문학·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수집하고 그 속에서 지리적 경험을 추출하여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 켈프는 투안의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장소의 개념과 방법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두 연구자 모두 장소감 혹은 장소정체성에 대해, 인간이 그 장소에서 했던 경험과 인식이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였다. 이-푸 투안 저, 구동희,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개정2쇄), 대운, 2011, 6면.

6) 에드워드 켈프, 앞의 책, 2008, 34~35면, 105~142면.

(상징)로 구성되는 그 장소의 속성이다.⁷⁾ 이는 곧 어떤 일이 일어나는 물리적 토대로서의 공간-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경험-인간이 경험을 통해 인식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공간에 부여하는 의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장소 정체성을 구성하는 위의 세 요소는 결국 궁궐과 관련한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궁궐 관련 문화콘텐츠는 건물, 전각(殿閣)과 같은 물리적 공간만으로 개발될 수는 없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 활동한 임금이나 비빈, 세자, 신료 등의 구체적 체험에 기반을 두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그들이 해당 전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와 같은 일종의 문화적 코드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⁸⁾

궁궐 문화콘텐츠 연구는 주로 풍수지리 등 건축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⁹⁾ 이들 연구에서는 궁궐에 대한 기존 안내가 주요 건물과 연혁 위주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궁궐 현장에서 과거 조선의 문화,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¹⁰⁾ 그래서 궁궐이라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로써, 실록 속에 담긴 주요한 역사적 사건, 건물의 입지와 관련한 풍수지리사상에 주목하였다. 궁궐과 관련한 인간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실록, 의궤 등 역사적 기록에 담겨있다. 반면 그 활동의 결과 일어난 인간의 주관적 인식과 장소에 대한 해석은 문학적 기록, 즉 시문에 담겨있다. 역사적 기록에 대한 연구와 달리, 시문의 경우 그간 궁궐 문화콘텐츠 개발의 과정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에 대한 주목 없이는 그 장소 정체성에 대한 총체적 재현이 불가능하다. 즉,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인간 주체의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감정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7) 위의 책, 2008, 112~113면, 138~141면; 심승희, 『역자해제: 장소의 진정성과 현대 경관』, 위의 책, 2008, 306~307면.

8) 전종현, 서민철, 장의선, 박승규 저, 『장소와 경관을 새롭게 읽기』, 『인문지리학의 시선』(개정3판), 사회평론, 2017, 250면.

9) 최근 10년간 제출된 학위논문 가운데 본고가 각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본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창근, 『궁궐 중요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박재희, 『서울 궁궐의 풍수지리 분석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송희은, 『창경궁의 장소성과 상징성의 사회적 재구성』,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7. 관련 연구 성과는 이들 논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10) 이창근, 위의 논문, 2013, 4면.

것이 바로 시문이므로, 이 세 요소에 대한 상보적 접근을 통해 궁궐의 장소 정체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¹¹⁾ 아울러 그러한 인식 가운데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의미를 갖는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서울에 소재한 조선의 4대궁궐(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가운데 관람객 수가 가장 적은 창경궁(昌慶宮)을 대상으로 한 시문을 분석하여 창경궁 문화·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창경궁의 내·외국인 관람객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의 4대궁 가운데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¹²⁾ 문화재청에서 공개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문화유산 활용 경쟁력 제고의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궁궐 활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라 경복궁과 창덕궁은 문화콘텐츠의 신규 개발이 공언되어 있으나 창경궁은 빠져있다.¹³⁾

문화·관광콘텐츠의 개발은 대중들에게 보편적인 소재로 공감과 호기심, 재미와 감동을 갖도록 해야 함은 물론 비슷한 유형의 콘텐츠들과의 차별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¹⁴⁾ 그러한 측면에서 관람객 선호도가 가장 낮은 창경궁은 궁궐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하겠다. 먼저 2장에서는 창경궁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및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창경궁 대상 시문을 개관함으로써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을 강화·보완할 단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논지의 선명성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창경궁의 역사적 연혁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창경궁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소 정체성을 강화하

11) 인문지리학이 장소에 담긴 감성적·미학적·상징적 이해를 시도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문은 인문지리학의 주요한 분석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전중환, 서민철, 장의선, 박승규 저, 『쟁점으로 읽어보는 지리학사』, 앞의 책, 2017, 71면 참고.

12) 『궁·능·원 관람 현황』,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문화재청, 94면. 이에 따르면 2017년 경복궁의 관람객은 약 450만 명, 덕수궁은 184만 여명, 창덕궁은 180만 여명이나, 창덕궁은 83만여 명에 불과하다. 궁궐에 배치된 문화재 안내 해설사 역시 경복궁 12명, 창덕궁 16명, 덕수궁 11명만에 비해 7명만이 배치되어 있다.

13) 문화재청, <2017년 성과와 평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018.1, 문화재청, 1~2면.

14) 전명숙,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는 논문집 5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07, 778면.

고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통한 창경궁의 상징적 장소의 재발굴과 그 복원 내지 재현의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에 따라 시문의 문예미를 분석하는 한문학의 정통 연구방식 대신 시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인물과 역사적 사건, 해당 전각과 관련한 편찬자의 의식 등을 방증해 나가는 연구방식을 통해 그 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고자 한다.

II.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 및 관련 작품 개관

1. ‘살아 숨쉬는 4대궁궐’ 프로젝트와 ‘효(孝)의 궁궐’

먼저 창경궁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광프로그램을 개관함으로써, 현재 형성되어 있는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과 미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경궁은 일제 강점기에 ‘창경원(昌慶苑)’으로 위상이 격하되면서 궐내각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각이 훼손되었으나 1983년 이후 다시 본래의 이름을 찾고 복원에 들어갔다. 이 때 정부는 창경궁 일대의 전각과 터, 문화재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다.¹⁵⁾ 발굴조사의 주체는 당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으로, 창경궁의 발굴보고서 및 1차 중건 완료이후 발간한 『창경궁중건보고서(昌慶宮重建報告書)』(1989)에 창경궁과 각 전각의 연혁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이때 근간이 된 사료는 『조선왕조실록』이었는데, 시문의 경우 김종직의 <환취정기> 등 유명 작품 1-2편을 제외하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 문화재청은 학술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창경궁의 현판과 주련(柱聯)의 의미를 해석하는 한편,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여겨진 창경궁의 역사적 특징을 더욱 부각시켰다.¹⁶⁾ 궁

15) 문화재관리국, 『昌慶宮-發掘調査報告書』, 1985, 17면. 이 보고서는 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16) 한영우, 『昌德宮과 昌慶宮』, 열화당·효형출판, 2003; 이광호, 김영봉, 정호훈, 김채식 등, 『궁궐의 현판과 주련』 2 창덕궁·창경궁(2006년 문화재청의 학술 조사 연구 용역), 수류산방, 2007;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昌慶宮의 建築과 人物』, 문화재청, 2008.

결은 조선의 유교적 덕치주의와 인문주의 정신이 망라된 곳으로, 그 현판이 나 주련에 집약되어 있는 유교적 세계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궁궐 문화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의미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¹⁷⁾ 다만 여전히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의궤, <동궐도(東闕圖)> 등의 사료가 근거가 되고 있으며 시문과 상량문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거나,¹⁸⁾ 언급되더라도 적극적인 의미 부여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는 ‘살아 숨쉬는 4대궁 및 종묘 만들기(이하 4대궁 프로젝트 지칭)’ 프로젝트와 함께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4대궁 프로젝트는 궁궐과 종묘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명소로 만들기 위해 문화재청이 지난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추진해 온 사업이다.¹⁹⁾

문화재청에서는 이를 위해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2010』을 수립하는 한편, 4대궁 프로젝트를 통한 역사문화유산 브랜드화의 방안으로 ‘창덕궁 복합문화관, 조선왕릉 탐방센터 등 관람 인프라 선진화’, ‘동궐 통합관람, 종묘 제한관람 등 질 높은 관람을 위한 제도개선’, ‘주요전각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통한 장소마케팅 강화(전각을 활용한 체험·공연확대 등)’, ‘궁중 생활상 재현 확대’, ‘궁궐별 특성에 따른 상설프로그램 확충’ 등 5대 원칙을 제시하였다.²⁰⁾

그 결과 창경궁의 브랜드화는 ‘조선왕실의 효심과 내전(內殿)의 다양한 이야기가 살아있는 궁궐’라는 장소 정체성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²¹⁾

17) 이광호, <머리말>, 앞의 책, 2007, 6~9면.

18) 어제(御製) 가운데 숙종의 <신독제명(愼獨齋銘)>과 <시민당명(時敏堂銘小序)>, 영조의 <구용재소기(九容齋小記并箴)> 등 세 편에 대해 가독성이 높으면서도 시적(詩的)인 문체로 번역하면서 각 전각명의 의미와 함께 이들 임금이 자신이 왕세자일 때 공부하던 것을 상기하며 세자에게 세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당부하고 공부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간략하게 밝힌 바 있다.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앞의 책, 2008, 62~63면, 71~72면.

19) 궁궐은 우리 역사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장소이자 왕과 왕실 사람들이 생활하며 희로애락을 담아낸 삶의 공간이기에 궁궐이 전하는 역사, 인물, 건축, 자연 등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선조들이 오랜 역사와 삶 속에서 터득해낸 보편적 지혜가 담겨있으므로, 궁궐의 문화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 문화재청, 2016, 138면.

20) 문화재청, 『2010년 문화재청 주요 업무계획』, 문화재청, 2009, 7면.

21) 문화재청, 『살아 숨쉬는 4대궁 및 종묘 건설링 보고서-4대궁 중창기 홍보 마스터플랜』, 인

창경궁은 성종이 1483년(1484년 완공) 창덕궁 동쪽에 정희대비, 인수대비, 안순대비 등 세 분의 대비를 위해 궁궐을 영건한 이래, 창덕궁과 함께 국왕과 왕실의 가족들이 가장 오래 머문 정치·생활공간이며, 훗날 정조 역시 모친 혜경궁 홍씨를 위해 자경전(慈慶殿)을 건립하는 등의 연혁이 있으므로 ‘효의 궁궐’, 혹은 ‘여성의 궁궐’이라는 정체성이 선택된 것이다.²²⁾ 이처럼 왕실의 효심과 내부의 다채로운 스토리를 바탕으로 창경궁에서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주요 문화콘텐츠는 아래와 같다.²³⁾

<표1> 창경궁 정례 운영 문화콘텐츠 목록

프로그램 명칭	주요 내용
창경궁의 아침	국립국악원이 창경궁에서 펼치는 고궁음악회
궁궐에서 1박2일 문화체험	2012년 실시. 창경궁 통명전에서 해설이 있는 궁궐 관람, 茶禮 체험, 왕세자교육, 궁중복식체험, 세계문화유산 답사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1박2일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함.
창경궁의 야간개장	경복궁 야간개장, 창덕궁 달빛기행과 함께 명정전 일대와 대온실 일대에 등을 달아 벚꽃 개화와 가을 단풍을 감상할 수 있게 야간에 관람하는 프로그램. 창경궁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²⁴⁾
궁궐의 일상을 걷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최. ‘영조와 창경궁’, ‘정조와 창경궁’ 등의 테마로 궁궐의 일상생활을 연극을 통해 재현. 5월, 10월 등 주말로 정기화
인문학 강좌	통명전 등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펼치는 공개 강연

위에 제시한 프로그램들 가운데 창경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관광·문화 콘텐츠는 일제강점기에 창경궁에 조성한 식물원인 대온실 인근에서 펼쳐지는

포마스터, 2011, 26면.

22) 한영우, 앞의 책, 2003, 23면. 실제로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도심속의 자연 그리고 창경궁』, 문화재청, 2008.12;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효의 궁궐 창경궁』, 국제문화사, 2008.12; 문화재청,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2010』 등에서 조선 전시기를 통해 창경궁이 대비와 관련이 깊으며, 조선시대 왕들의 효심과 왕실 여성문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신명호, 『창경궁의 주요 전각과 왕실의 여성문화』,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2010』, 문화재청, 2010, 90면 참조.) 문화재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경궁을 안내하기 위해 발간한 『우리들의 창경궁』의 경우에도 성종이 대비를 위해 지은 ‘효의 궁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간행한 위의 도서들은 모두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23) 프로그램은 문화재청 창경궁 홈페이지(<http://cgg.cha.go.kr>)에 게시되는 것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24) 문화재청, 『문화재청 성과관리시행계획』, 2017, 122~123면.

야간개장이다.²⁵⁾ 창경궁에서 근대에 벌어진 비극적 역사의 현장 역시 그것대로 의미가 있고, 궁궐 내부의 자연적 환경이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겠으나, 왕실로서 창경궁이 갖는 장소 정체성인 ‘효의 궁궐’과 ‘내전의 다양한 이야기가 살아있는 궁궐’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이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 외에도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스토리를 적극 개발하고 이를 궁궐 활용 프로그램에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궁궐 내부의 다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궁궐이라는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궁궐의 일상을 걷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에 잘 부합하는 사례로 들 수 있다. 연극을 통해 궁궐의 일상생활을 재현하는 행사인 ‘궁궐의 일상을 걷다’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2> ‘2018년 궁궐의 일상을 걷다’ 프로그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창경궁 일원 ○ 내용: 정조시대 궁궐일상 재현행사 ○ 역사배경: 정조시대 ○ 인원구성: 47명(주연배우: 왕, 후궁, 세자, 세자빈, 신하, 상궁 등 (10명), 단역배우: 나인, 내시, 산선시위 등(30명), 해설 및 안내: 극 내용 설명 안내(7명) ○ 운영시간: 1막 60분(13:30~14:30)/2막 60분 (15:00~16:00) ○ 구성내용 - 1막: 정조의 일상(명정전, 문정전, 함인정) 1장: 명정전 - 신해통공 관련 왕과 대신의 의논과 정책 결정과정(15분), 2장: 함인정 - 정조의 왕권강화와 인재등용(15분), 3장: 문정전 - 정조의 효심을 보여주는 스승과의 대화(15분). 	
---	--

25) 문화재청, 『2011년 살아 숨쉬는 4대궁·종묘 만들기 사업 모니터링 용역 결과보고서』,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1, 20면; 문화재청,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문화재청, 2018.1, 39~40면(‘콘텐츠 개발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 창경궁 대운실 등 전시시설 확충, ‘창경궁야간경관조성’).

<p>- 2막: 궁궐 여인들의 이야기(경춘전, 통명전, 집복헌)</p> <p>1장: 경춘전-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태몽(정조)와 관련된 대화(15분), 2장: 통명전-내명부 수장인 증전(효의왕후)의 역할 (15분), 3장: 영춘헌 집복헌-순조의 탄생과 아버지로서의 정조(15분)</p> <p>* 2막 3장은 영춘헌 집복헌 공사관계로 인접 공간 양화당 실시</p>

2018년 현재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수문장의 일상이나 어전회의 등 임금의 일상, 중전을 비롯한 왕실 여성들의 삶과 일상, 내의원의 일상, 궁녀의 일상 등 창경궁에서 펼쳐진 에피소드를 테마로 하여 연극의 형태로 펼쳐지는 궁궐 투어로서, 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홍화문, 옥천교, 문정전, 함인정, 통명전, 영춘헌 등 주요 전각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고 있다.²⁶⁾ 위의 표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정조실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²⁷⁾ 이는 창경궁에 현전하는 주요 전각에서 펼쳐진 왕실 인물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들로, ‘내전의 다양한 이야기가 살아있는 궁궐’이라는 장소 정체성에 비교적 잘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물리적 공간과 인물의 경험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어 그 속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재발굴하는 데 이르기까지는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몇 차례 언급된 특정 자료만 지속적으로 주목하거나 현전하는 전각을 중심으로만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다보니, 창경궁에 존재하던 다양한 전각과 그 속에 담긴 인물들의 경험, 감정이 미처 개발되지 못한 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효’, ‘여성’의 궁궐이라는 장소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세부적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때 창경궁만의 장소적 가치를 재발굴하고 재인식하는 단초가 되는 다양한 전각과 인물들의 경험, 그 속에 담긴 왕실 인물들의 회로애락을 폭넓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궁궐의 일상을 걷다’ 외에 궁궐에서 직접 숙박을 하며

26) 한국문화재단(<https://www.chf.or.kr>), 『문화행사-고궁행사』, 중 창경궁 ‘궁궐 일상을 걷다’ 안내.

27) 예컨대 경춘전에서 공연되는 2막 1장 태몽이야기는 『정조실록』 권1,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10일, 정조의 즉위일 기사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세부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궁궐에서 1박2일 문화체험’ 역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²⁸⁾ ‘왕세자 교육’과 같은 세부프로그램을 왜 다른 궁궐이 아닌 창경궁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등 창경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부각시켜 관람객들이 지속적으로 흥미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시문(詩文) 개관

이 절에서는 창경궁의 건립 이후부터 순조대에 이르기까지 소설과 건립을 반복한 창경궁의 전각을 망라하여 관련 시문의 제작 현황을 표로 정리하고자 한다. 규장각 소장 『궁궐지(宮闕志)』²⁹⁾에 수록된 전각명을 중심으로 『한국문집총간』과 『승정원일기』 등에 실린 관련 시문을 찾아 열거하였다. 이때 궁궐에서 직접 벌어진 사건이 아닌 개인적 소회를 토로한 작품은 제외하였다.

<표3> 창경궁 소재 전각 및 관련 시문 목록

전각명	작품명	작가	수록위치	비고
昌慶宮	至日, 昌慶宮賜宴, 應制	金宗直	『佔畢齋集』 권19	
	昌慶宮曲宴, 仍饋諸宗宰, 醉而賦	洪貴達	『虛白亭文集』 권1	
	請停昌慶宮修理之役疏	李垞	『蒼石先生續集』 권3	
	昌慶宮修理, 移御後入直摠府口號	許禧	『水色集』 권6	
	昌慶宮址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 권56	
壽康宮	壽康宮上梁文	金訢	『顏樂堂集』 권2	
景春殿	景春殿畫龍贊并小序【壬申】	莊獻世子	『凌虛閣漫稿』 권7	
	景春殿記	正祖	『弘齋全書』 권14	
	景春殿頌 并引	洪敬謨	『冠巖全書』 冊9	
	景春殿記	純祖	『純齋稿』 권3	
	慶春殿上梁文	朴綺壽	『上樑文集』 ³⁰⁾	실물 현존

28) 문화재청, 『2012년 살아 숨쉬는 4대궁·종묘 만들기 사업 모니터링 용역 결과보고서』,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2, 51~54면.

29) 이 책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서울학연구소에서 영인과 해제, 국역 사업을 진행하여 간행물로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궁궐지』 2, 1996.

30)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궁궐 보수시에 발견된 상량문들을 모아 『상량문집(上樑文集)』을 간행한 바 있다. 文化財管理局, 『上樑文集』, 1991. 서울소재 상량문 네 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춘전상량문’이며, 1991년 변와(甃瓦)를 보수할 때 종도리[宗道里 長舌]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세 편은 ‘德壽宮中和門上樑文’, ‘獻陵丁字閣重修上樑文’, ‘貞陵丁字閣重建上樑文’이다.

明政殿	丙寅五月二十五日, 進大王大妃尊號上御明政殿受賀, 與院僚陪侍, 退飲宣醢, 記事	任相元	『恬軒集』 권13	
	九月十八日文科殿試, 入侍明政殿, 廢和御製	李天輔	『晉菴集』 권3	
	參明政殿陳賀班, 退賦三疊律志喜	李若烈	『訥窩文集』 권1	
	明政殿進爵宴禮記	洪敬謨	『冠巖全書』 冊14	
	明政殿進饌致詞 己丑	孝明世子	『敬軒集』 권6	
文政殿	없음			
徽寧殿 (文政殿)	徽寧殿致詞	李福源	『雙溪遺稿』 권5	
壽寧殿	없음			
歡慶殿	殯宮移奉歡慶殿後, 百官陪哭行禮於涵仁亭庭	丁若鏞	『嘉順宮喪禮問答』	
	歡慶殿上樑文	鄭弘溟	『畸庵集』 권9	
仁陽殿	없음			
通明殿	通明殿上樑文	鄭百昌	『玄谷文集』 권1	
	通明殿月色晃朗, 陪兩宮, 步出殿門	黃景源	『江漢集』 권2	
	通明殿重建上樑文	趙寅永	『雲石遺稿』 권11	
	通明殿進饌時, 中宮殿親上致詞. 戊申	朴永元	『梧墅集』 冊5	
	通明殿進饌時, 左右命婦宗親儀賓戚臣致詞	朴永元	『梧墅集』 冊5	
	呈才十詠	趙冕鎬	『玉垂先生集』 권5	
養和堂	없음			
麗暉堂	없음			
思誠閣	없음			
環翠亭	環翠亭記	徐居正	『四佳文集』 권3	
	環翠亭記	金宗直	『佔畢齋集』 文集 권2	
	環翠亭記	洪貴達	『虛白先生續集』 권5	
	環翠亭記	金訥	『顏樂堂集』 권2	
	環翠亭記	孫舜孝	『勿齋集』 권1	
	環翠亭記	魚世謙	『咸從世稿』	
崇文堂	없음			
涵仁亭	殯宮, 移奉歡慶殿後, 百官陪哭行禮於涵仁亭庭	丁若鏞	『嘉順宮喪禮問答』	
	涵仁亭銘 并引	洪敬謨	『冠巖全書』 冊9	

迎春軒 · 集福軒	迎春軒, 奉觴志喜, 用洛南前韻	正祖	『弘齋全書』권7	
	訓語	正祖	『弘齋全書』권177	徐龍輔 錄(1796)
	慈宮誕辰, 迎春軒奉觴時廣韻【丙辰一】	李晚秀	『履園遺稿』권6	
	東宮冊封日, 迎春軒恭觀盛儀	丁若鏞	『第一集詩文集』권3	
	迎春軒廣韻	尹行恁	『碩齋稿』권2	
	迎春軒召對【丁丑四月二十日, 上番魚允中, 下番金允植, 承旨趙準永, 閣臣金興均, 冊子通鑑第八卷】	金允植	『雲養集』권8	
	慈宮誕日, 侍宴迎春軒, 敬廣御製韻	洪仁謨	『足睡堂集』권2	
	廣進御製迎春軒奉觴志喜, 用洛南軒前韻	柳台佐	『鶴棲先生文集』권1	규장각초계 문신응제
恭和御製迎春軒獻壽惠慶宮韻	姜浚欽	『三溟詩集』二編		
翠雲亭	翠雲亭題詠	肅宗	『宮闕志』	현 창덕궁 권역
	翠雲亭六詠	肅宗	『宮闕志』	
	九日登翠雲亭	肅宗	『宮闕志』	
	翠雲亭賦 辛未	莊獻世子	『凌虛閣漫稿』권1	
翠雲亭敬次肅宗大王御製韻	孝明世子	『敬軒集』권1		
壽康齋	壽康齋上梁文【乙巳】	正祖	『弘齋全書』권54	『궁궐지』 미수록 현 창덕궁 권역
	壽康齋侍宴記	洪敬謨	『冠巖全書』冊17	『궁궐지』 미수록 현 창덕궁 권역
慈慶殿	慈慶殿新恩謝恩, 親受入侍	金永壽	『荷亭集』권1	
	慈慶殿頌 并引	洪敬謨	『冠巖全書』冊9	
	慈慶殿記【戊辰】	純祖	『純齋稿』권3	
	慈慶殿記	純祖	『純齋稿』권3	
	慈慶殿進爵時上兩殿致詞【丁亥】	孝明世子	『敬軒集』권6	
	慈慶殿進爵時親上致詞【戊子】	孝明世子	『敬軒集』권6	
	慈慶殿進饌致詞	孝明世子	『敬軒集』권6	
	慈慶殿夜進饌致詞	孝明世子	『敬軒集』권6	
	慈慶殿進饌致詞【己丑】	孝明世子	『敬軒集』권6	
慈慶殿夜進饌致詞	孝明世子	『敬軒集』권6		
通和殿	通和殿四時節日朔望祝文【丙子】	金義淳	『山木軒集』권16	그밖에 練祭, 祥祭, 禪祭文 등
	陪祀通和殿【惠慶宮魂宮】	姜浚欽	『三溟詩集』6編	
就善堂	없음			

時敏堂	時敏堂銘并序	肅宗	『國朝寶鑑』권49, 『숙종20년』	
儲承殿	없음			
藏經閣	藏經閣銘	肅宗	『宮闕志』	
遜志閣	遜志閣詩	英祖	『宮闕志』	
莊敬閣	莊敬閣序	英祖 命 春坊官員	『承政院日記』	원문일실
養正閣	養正閣銘并小序	英祖	『宮闕志』	
	養正閣志喜	英祖	『宮闕志』	
敬極堂	없음			
進修堂	없음			
恭默閣	恭默閣識	英祖	正祖, <恭默閣記> 中	원문일실
	恭默閣記	正祖	『弘齋全書』권14	
澹然窩	澹然窩記	世子侍 講院 左右賓客	正祖, <恭默閣記> 中	원문일실 『궁궐지』 미수록
佳孝堂	佳孝堂 碧水銀臺萬種色爲韻	純祖	『純齋稿』권2	
精一齋	精一齋辭 并小序【壬申】	莊獻世子	『凌虛閣漫稿』권1	
建極堂	建極堂壁上圖像四頌 并序	金萬基	『瑞石先生集』권5	
愼獨齋	愼獨齋銘并序	肅宗	『宮闕志』	
	九月八日上愼獨齋	肅宗	『宮闕志』	
九容齋	九容齋小記并箴	英祖	『宮闕志』, 『承政院日記』	
	春宮九容齋序	鄭彥燮	『承政院日記』	원문 일실
樂善堂	樂善堂上樑文	金光煜	『竹所集』권5	『궁궐지』 미수록 현 창덕궁 권역
	樂善堂	英祖	『宮闕志』	현 창덕궁 권역
明政門	없음			
玉川橋	없음			
弘化門	없음			
賓陽門	없음			
闕內各司	昌慶宮修理, 移御後入直總府 口號	許禧	『水色集』권6	五衛都總府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주요 건물에 대한 전각기가 모두 현전하는 것은 아니다. 1484년 2월 11일 완공 이후, 성종의 명에 따라 명정전(明政殿), 문

정전(文政殿), 수녕전(壽寧殿), 환경전(歡慶殿), 경춘전(景春殿), 인양전(仁陽殿), 통명전(通明殿), 양화당(養和堂), 여취당(麗暉堂), 사성각(思誠閣) 등 창경궁에 새롭게 영건한 10채의 전각에 대해 서거정이 명칭을 지었다.³¹⁾ 11월, 영중추부사 이극배(領中樞府事 李克培)가 성종께 창경궁 각 전각과 대문의 명칭 및 그 의미를 담은 글을 홍문관의 관원들에게 짓게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성종은 창경궁이 대비를 위해 지은 것이므로 굳이 각 전각의 기문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일축하였다.³²⁾ 그렇기에 현재 조선전기에서 지어진 작품은 김종직, 서거정, 어세겸, 홍귀달 등의 <환취정기>와 김혼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수강궁상량문>에 불과하다. 또한 영건 당시 전각이 모두 열 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창경궁의 규모가 다른 궁궐에 비해 소박하다는 점도 유추할 수 있다.

창경궁과 관련한 공식적 시문은 위와 같이 약 80여 편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데, 그 가운데 어제(御製)는 숙종, 영조, 정조, 순조의 것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네 임금은 창경궁에 새로운 전각을 많이 영건하거나 수리하였으며, 신료들에게 명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전각의 기문을 지었다. 주로 그 대상은 모후(母后) 및 세자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품들은 창경궁과 관련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과정에서 별달리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덕궁과 현판, 주련, 상량문, 왕실의 용품 등을 특별전시하며 발간한 도록인 『창덕궁, 아름다운 덕을 펼치다』(국립고궁박물관, 2011)에서 명(銘), 상량문, 기문, 어제 등을 망라하여 서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창경궁이 경복궁, 창덕궁 등과 가장 변별되는 점은 바로 왕세자들이 학업을 닦고 신하들을 접견하는 장소로 쓰인 강학용(講學用) 전각이 유달리 많다는 것이다. 경복궁의 동궁(東宮)은 자선당(資善堂)과 비현각(丕顯閣), 창덕궁의 동궁은 성정각(誠正閣) 정도임에 비해 창경궁은 춘궁(春宮, 1487)³³⁾, 저승전(儲承殿, 1647 중건), 건극당(建極堂, 1670)³⁴⁾, 신독재(愼獨齋, 1689) 이

31) 『성종실록』 권163, 1484년(성종 15) 2월 11일.

32) 『성종실록』 권172, 1484년(성종 15) 11월 4일.

33) 성종이 세자이던 연산군을 위해 춘궁의 건립을 추진한 경과에 대해서는 신명호, 앞의 책, 2010, 88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34) 저승전과 건극당의 건립일은 『궁궐지』 참조.

後), 정일재(精一齋, 1692)³⁵, 시민당(時敏堂, 1694), 장경합(莊敬閣, 莊敬閣, 1725), 구용재(九容齋, 1726), 양정각(養正閣, 1736), 공묵합(恭默閣, 1783) 등 궁궐 전체 규모에 비해 강학의 전각이 많으며 관련 시문도 풍성하다. 동궁전 권역은 경복궁, 창덕궁 등에도 있지만, 창경궁의 동궁전 권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시문을 통해 부각시킬 수 있어야 앞서 살펴본 궁궐 숙박 체험 프로그램 등이 관람객들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개관한 창경궁 관련 시문을 통해 ‘효의 궁궐’, ‘여성의 궁궐’, ‘내전의 다양한 이야기’가 살아있는 궁궐이라는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단초들이 발견된다. 즉, 창경궁은 다른 궁궐에 비해 규모가 검소하다는 점, 세자의 교육과 관련한 궁궐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밖에 환취정과 같이 조선전기에 건립된 전각과 관련한 작품을 바탕으로 창경궁의 랜드마크를 재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 등을 엿볼 수 있다.

III.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 강화 방안

1. ‘효의 궁궐’ 이면의 이야기와 문화 해설 보완

‘효의 궁궐’이라는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 봐야 할 글은 바로 1483년 창경궁이 영건될 당시에 지어진 <수강궁상량문>이다. 상량문은 변려문(駢麗文)으로 되어 있다는 점, 대(對)를 맞추어 수많은 고사를 삽입하는 등 각종 미사여구가 어려운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점, 건축의 연혁과 건축에 임하는 이유, 관련 인물 정보를 포함한 실용적 내용 등으로 인해 문학이나 건축분야 모두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안에는 분명 궁궐의 영건이 필요했던 상황과 미의식,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당부 등 삶과 거처와 관련한 지향이 담겨 있다.³⁶

35) 정일재는 집복헌의 서북쪽과 양화당의 동쪽에 있는 곳으로 장헌세자(사도세자)가 ‘정일(精一)’의 성리학적 의미에 대해 쓴 <정일제사(精一齋辭 并小序)>가 남아있다. 한편, 정일재는 현재 암반으로 된 터만 남아있는데, 복원계획에서는 이 자리에 건물을 복원하지 않고 암반을 노출시킴으로써 궁궐 내에서도 지형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전각을 지었던 사례로 전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문화재청, 앞의 책, 2010, 217면.

36) 심경호, 『상량문의 문학성 시론』, 『한문학회』 제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321면, 349면.

성종은 1483년(성종 14), 홍문관 응교인 김종직에게 창경궁의 상량문을 지어서 바치게 하였는데, 같은 해 3월 3일 그 내용 가운데 “건축하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하여도, 백성들이 와서 앞 다투어 공사에 나아간다.[經始勿亟, 來庶民而爭趨]”라는 구절을 거론하며, 이는 자신의 공역을 『시경』에 수록된 문왕(文王)의 업적에 비의한 것이므로 감당할 수 없다 하며 수정할 것을 명하였다.³⁷⁾ 잘 알려져 있듯, ‘經始勿亟’은 『시경』(『대아』) <영대(靈臺)>의 구절이다.³⁸⁾ 문왕이 영대를 건축하려 하자 백성들이 마치 부모 일에 달려오듯 자발적으로 공사에 임해 하루가 못 되어 영대가 완성되었다는 고사이다. 그러나 창경궁은 영건 당시 가뭄이 심하여 부역에 동원된 백성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을 뿐더러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창경궁의 건축을 정지할 것을 누차 건의하였기 때문에, 성종으로서는 위와 같은 표현이 내심 마음에 걸렸을 터이다.³⁹⁾

김종직이 찬진한 <창경궁상량문>은 현재 일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성종이 거론한 바로 그 표현이 김흔(金訥, 1448~1492) 작 <수강궁상량문>에 그대로 삽입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시경』의 ‘庶民子來’라는 표현을 ‘來庶民而爭趨’로 바꾼 것은 오직 <수강궁상량문>에서만 용례를 찾을 수 있다.⁴⁰⁾ 1483년의 실록 기사에는 ‘창경궁’과 ‘수강궁’이 혼용되고 있었으며, 이듬해의 기사에서도 성종이 수강궁에 거둥하여 새로 짓는 궁실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37) 『성종실록』 권152, 1483년(성종 14) 3월 3일, “弘文館應教金宗直撰進昌慶宮上樑文, 有‘經始勿亟, 來庶民而爭趨’之句, 上曰: ‘此文王之事, 我何敢當? 其改之.’”

38) 『시경』 『大雅』, <靈臺>, “經始勿亟, 庶民子來.”

39) 『성종실록』 권152, 1483년(성종 14), 3월 12일, “御經筵 講訖(…) 秀光及司諫柳自漢啓曰: ‘今當農月, 旱氣已甚, 壽康宮土木之役, 停寢何如?’ 上顧問左右, 領事鄭昌孫對曰: ‘壽康宮營繕, 不得不爲, 況民飢, 役而食之, 可也.’ 上曰: ‘予不待臺諫之言, 心有所未安. 然此役不得已也. 停役則材木必朽矣.’ 秀光曰: ‘當春農務最切, 材木雖朽, 不足惜也.’ 上曰: ‘材木, 本勞民轉輸, 今若腐朽, 而壽康之役, 終不得已, 則必復勞民, 此誠可慮也.’ 秀光曰: ‘歲豐而民食足, 則雖營百室, 何所不可哉?’ 上曰: ‘將問修理都監, 而處之.’”; 1483년(성종 14) 3월 25일, “御經筵 講訖, 大司諫朴繼性、掌令李渾啓曰: ‘近來旱氣太甚, 請停營造, 以謹天戒.’ 上曰: ‘壽康宮改造之舉, 予亦慮焉, 臺諫之言, 誠有理. 然非故爲侈靡, 以窮民力. 觀其宮室傾頽, 勢難支久, 況材木轉積已久, 多有朽敗. 若今年停役, 則儻有年歲失農, 民力日困, 將坐視其圯頽, 而不之修乎? 如不得已而更舉, 則既輸之材已朽, 將必更求他材, 民力豈不重困乎? 今修治之功已就, 不可停廢. 且陰陽家以今年爲吉. 邪說雖不足信, 然凡人造一小屋, 尙必問其吉凶, 建立宮闕, 豈可不顧乎? 其勿更言.’”

40) 조선전기 홍문관의 관리들이 임금의 명에 따라 관각문학을 찬진할 때 초창(草創)과 윤색(潤色)을 거친 단계적 글쓰기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자료이다. 이에 대해서는 방증자료들과 함께 별고를 통해 고구하고자 한다.

기사⁴¹⁾가 있는 것으로 보아 김혼의 <수강궁상량문>은 일실된 <창경궁상량문>의 대강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 글은 ‘아랑위(兒郎衛)’로 시작되는 육위송(六位頌)이 함께 남아있고, 『속동문선(續東文選)』에도 수록되어 있으나 그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수강궁상량문>은 궁궐의 영건이 융성한 시운(時運)의 표상이라고 여기며 공사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조선전기의 전형적 사고를 보여준다. 먼저 태조가 왕위에 올라 현 창경궁의 터에 수강궁을 지었다는 것에서부터 수강궁의 터전을 계승한 후손들이 오래도록 낡은 전각을 수리하지 못하다 드디어 밝은 군주와 어진 신하[明君賢相]가 만나는 태평성대[熙康]의 적절한 시기를 얻어 수강궁이 창경궁으로 새로이 영건되기까지의 연혁을 간략히 읊고 있다.⁴²⁾ 그 가운데 창경궁 영건의식의 핵심이 담긴 부분은 아래와 같다.

건축하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하여도 백성들이 앞 다투어 공사에 나아가고, 편하게 해주는 도리로 힘들게 하지 말라 하여도 100堵의 담장을 모두 일으키네. 그림쇠[規矩], 먹줄[繩墨], 도끼[斧斤], 칼과 톱[刀鉞]으로 대목수의 기예를 돕게 하니, 두공[構榑], 짧은 기둥[侏儒], 문설주[椳闈], 빗장[扂楔]은 모두 알맞게 지어졌네. 멀리 『주역』을 살펴 위에는 들보를 엮고 아래에 서까래를 엮는 대장괘(大壯卦)의 형상을 본뜨고, 멀리 한나라왕 무제가 천문만호의 건장궁을 사치스럽게 지었다는 명성을 비루하게 여기시네. 비록 수강궁 옛 터에 새 전각 영건하는 것이나 전보다도 빛나고 후에도 없을 일이다. 단청 기둥과 조각한 서까래는 풍부와 검약을 헤아려 중용에 맞았고,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계단 모서리[廉]와 높은 당은 등급을 두어 제도를 달리 하였으니, 엄중한 위엄은 궁실의 장려함 때문이 아니요, 환히 드러난 검소함 덕분에 장구함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큰 집이 낙성됨에 긴 대들보를 들어 올리니, 감히 만인의 즐거운 노래를 드날려 여섯 방위의 아름다운 찬송을 올리도다.⁴³⁾

41) 『성종실록』 권162, 1484년(성종 15) 1월 25일, “上幸壽康宮, 觀新營宮室”

42) 김혼, <수강궁상량문>, 『顏樂堂集』 권2, “周宣考室, 雅歌君子之寧, 衛文營宮, 詩紀國人之美. 惟宮室之修建, 視時運之興隆. 恭惟我太祖應天順人, 深仁積德, 化家爲國, 握乾元之貞符, 建邦定都, 據坤靈之正位, 既作室之底法, 乃鳩工而儻功, 爰始爰謀, 草創蓋勿暇之計, 肯堂肯構, 善繼在弗棄其基. 久莫能修, 時蓋有待, 方國家閒暇之日, 而明良熙康之時, 苟不圖鼎新之規, 何以表泰平之盛? 宸衷獨斷, 衆謀僉同, 于以相陰陽之宜, 抑亦得時日之吉.”

43) 김혼, 위의 글, 위의 책, “經始勿亟, 來庶民而爭趨, 佚道不勞, 連百堵以皆作. 規矩繩墨斧斤刀鉞以佐其藝, 構榑侏儒椳闈扂楔之得其宜. 仰稽義經, 取上棟下宇之象, 遠陋漢武, 侈千門萬戶之名. 雖因舊而謀新, 夙光前而掩後. 丹楹刻桷, 商豐約而折中, 遠康高堂, 知等級之異制. 重威非因於壯麗, 昭儉可期乎久長, 大廈迄成, 脩梁乃舉, 敢揚萬口之歡謳, 聊薦六方之嘉頌.”

김혼은 매 구절마다 『시경』과 『맹자』, 『주역』 등의 경전은 물론 당나라의 문인 류종원과 한유 등의 글을 인용하며 창경궁을 영건하는 시기의 적절함, 민력(民力)을 수고롭게 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⁴⁴⁾ 이와 같은 의례적 고사를 사용한 뒤, 김혼은 ‘검(儉)’과 ‘치(侈)’의 대비를 통해 성종이 ‘소검(昭儉)’의 원리에 입각하여 창경궁을 영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千門萬戶’는 한무제(漢武帝)가 영건한 궁전인 ‘건장궁(建章宮)’과 관련된 표현이다. 한무제가 장안에 건설한 백량대(柏梁臺)가 불에 타서 건장궁을 새로 지었는데 그 규모가 무려 천문만호에 이를 정도이며, 전전(前殿)의 경우 건장궁 동쪽에 있는 미양궁(未央宮)의 전전 보다도 높았다고 한다.⁴⁵⁾ 이에 비해 성종은 기존 수강궁의 궁궐을 넓고 사치스럽게 확장하는 것을 비루하다 여기고 오히려 화려함과 검소함을 적절히 조화시켜 중용을 맞춤으로써 검소함이 빛나는 궁궐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하였다고 칭송하였다. 검소함으로써 오히려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소검’이야말로 창경궁 영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궁궐을 새로 영건하는 일은 수많은 비용과 인력이 동원되는 일이므로 임금의 입장에서 쉽게 결정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⁴⁶⁾ 또한 조선초기부터 궁궐 건물에 대한 언급에는 늘 검소에 대한 당부가 드러나 있다. 궁궐의 검소한 규모는 덕치를 강조하고 백성을 중시하는 유가통치의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이다.⁴⁷⁾ <수강궁상량문> 역시 이와 같은 위정자의 덕치를 강조하고자 검약함을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성종실록』의 기사들과 함께 독해한다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성종은 1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기에, 정권 초기 7년은 할머니인

44) 『經始勿亟』의 첫 구절 외에도 ‘百堵皆作’라는 표현 역시 『시경』(『소아』), <홍안(鴻雁)>의 고사에서 차용한 것이며(“之子于垣, 百堵皆作, 雖則劬勞, 其究安宅”), ‘佚道’는 『맹자』 『진심상』에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도라는 의미로 활용된 구절이다.(“以佚道使民, 雖勞不怨.”) ‘規矩繩墨斧斤刀鉞以佐其藝, 構榑侏儒榑闔榑楔之得其宜.’는 각각 당나라의 문인 유종원의 글 <제인전(粹人傳)>과 한유의 <진학해(進學解)>에서 인용한 표현들이다. ‘仰稽義經, 取上棟下宇之象’라는 표현은 『주역』 <계사전하>에서 “후대의 성인이 궁실로 바꾸어서 위에는 들보를 얹고 아래에는 서까래를 얹어 풍우에 대비하였으니, 대장패에서 취한 것이다.(後世聖人, 易之以宮室, 上棟下宇, 以待風雨, 蓋取諸大壯)”라고 한 구절에서 뜻을 취하였다.

45) 班固, 『漢書』 권25下, <郊祀志第五下>, “於是, 作建章宮, 度爲千門萬戶, 前殿度高未央.”

46) 심경호, 앞의 논문, 2009, 321면.

47) 안장리, 앞의 논문, 2006, 37면.

정희대비의 수렴청정이 시행되었다. 1476년 1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창경궁의 영건이 확정되지 않았던 1476년 5월, 기존 수강궁 근처에 압박(壓迫)하고 있는 민가들이 너무 많아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서거정 등 신료들의 주청에 대해 성종은 민가를 철거하지 말 것을 명할 정도로 백성들을 아꼈다.⁴⁸⁾ 그로부터 3년 뒤 수강궁을 증수하여 창경궁을 영건할 계획에 대해 신료들이 비판하자, 성종은 대전을 비롯한 창덕궁 전각들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규모가 협소하고 낡아 대궐이라고 부를 수 없으므로 궁궐 내 여분의 땅을 활용하여 전각을 개축(改築)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답변하였다.⁴⁹⁾ 또한 경복궁으로 이어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 것도 경복궁 전각의 지나치게 큰 규모를 싫어하기 때문[惡其屋宇宏壯]이라고 직접 거론하였다.⁵⁰⁾ 성종은 본격적으로 창경궁 영건 공사가 시작된 1482년, 수리도감제조(修理都監提調)인 이극배(李克培)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궁궐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였다.

무릇 궁실(宮室)이란 마땅히 (담장 등을) 낮게 지어 햇빛을 향하여야 하며, 용도가 많되 지나치게 높고 크게 해서는 안 된다.⁵¹⁾

창덕궁의 존재, 오랜 가뭄 등으로 인해, 창경궁은 필연적으로 백성들의 삶이

48) 『성종실록』 권67, 1476년(성종 7) 5월 18일, “茂松府院君尹子雲、左參贊徐居正、工曹·漢城府堂上、觀象監提調等書啓, 昌德宮、壽康宮、景福宮臨壓可撤人家四十四, 仍啓曰: ‘臣等所見如此。但壽康宮前高處人家多, 意或自內視之, 可撤者疑復有之。’ 傳曰: ‘予當見而後言也。’ 俄而傳曰: ‘勿令撤去, 後勿加造。’”

49) 『성종실록』 권110, 1479년(성종 10) 윤10월 18일, “御經筵 講訖, 侍讀官李世匡啓曰: ‘臣等, 聞將增修昌德宮, 信乎? 祖宗所營構, 修其頽毀而已, 何必務爲宏大乎?’ 上曰: ‘爾聞於誰歟?’ 對曰: ‘臣所聞如是。’ 上曰: ‘此宮淺露, 宣政殿, 近於內, 雖名爲大闕, 制作規模, 實窄狹。今當改修, 有餘地欲廣之, 非撤人牆屋, 而增大也。政丞等必知大內矣。’ 領事洪應對曰: ‘果如上教, 甚淺露矣。’ 上曰: ‘爾既所聞如此, 言之是也。但予意, 則不如是也。’”

50) 『성종실록』 권118권, 1480년(성종 11) 6월 22일, “御經筵 講訖, 大司憲鄭佶啓曰: ‘臣等聞修理都監, 大興土木之役。宣政殿不至頽頽, 并使改構, 則其弊豈小哉?’ 上曰: ‘大內湫隘, 夏月無納涼之所, 不得已稍廣其制。然豈至丹楹刻桷, 以爲侈麗也?’ 佶曰: ‘臣等固知大內之狹隘, 上亦不喜侈麗, 但此殿堅固, 遽毀而修之, 爲不可也。’ 正言尹碩輔啓曰: ‘殿宇不至頽頽, 而增廣其制, 以困民力可乎?’ 上曰: ‘臺諫之言, 是也。然卿等豈知大內之爲甚湫隘也? 欲移御景福宮, 惡其屋宇宏壯, 欲修此宮, 以居之耳。’”

51) 『성종실록』 권149, 1482년(성종 13) 12월 14일, “傳曰: ‘(…)凡宮室, 要當卑而向陽, 用處多, 而無甚高大也。’”

나이지기를 기다려 영건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왕실의 웃어른인 세 분의 대비를 편안히 모시겠다는 효를 표방하며 창경궁을 영건하였지만, 성종은 민가를 철거하거나 민력을 크게 동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궁궐을 경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창경궁이 창덕궁의 별궁 개념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종의 그러한 궁궐 미학은 창경궁에 건축되는 주요 전각들의 규모가 한양 내 다른 궁궐의 전각에 비해 작다는 특징을 갖게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²⁾ <수강궁상량문>의 육위송 가운데 첫 번째 방위인 동방이 ‘바라건대 군은(君恩)의 비호가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願言恩庇與民同)’이라고 마무리된 것은 바로 효의 궁궐 이면에 자리한 성종의 검약정신을 집약적으로 칭송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⁵³⁾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을 집약하고 있는 상량문에서 ‘창경’이라는 명호와 그 의미에 대한 서술 대신 검약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경복궁의 장소 정체성을 집약하는 정도전(鄭道傳)의 <경복궁기(景福宮記)>, 그리고 창덕궁을 중건한 뒤 순조(純祖)가 친히 지은 <창덕궁명병서(昌德宮銘并序)>가 각각 두 궁궐 명칭의 유래와 의미를 통해 조선 왕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주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창경궁의 영건 배경으로 인해, 성종 이후 창경궁에 임하여 생활하고 전각을 증축하던 다른 임금들도 검약 정신을 계승하게 되었다. 대표적 예시로 정조가 창경궁에 임어하였을 때 거쳐하고 사망하였던⁵⁴⁾ ‘영춘헌’을 들 수 있다. 『궁궐지』에 따르면 영춘헌은 집복헌 동쪽에 있는 전각으로, 1484년 성종대에 건립된 전각은 아니다.⁵⁵⁾ 정조는 1796년 영춘헌에서 모친 혜경궁 홍씨의 회갑 이후 첫 생신을 맞아 아들 문효세자와 함께 축수하였는데, 잔치에 참여한 신하가 148명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성대한 행사였다.⁵⁶⁾

52) 신명호, 앞의 책, 2010, 83~85면.

53) 창경궁 조성 당시의 백성들의 고난과 그에 대한 신료들의 염려, 성종의 대응은 김연신, 『창경궁의 건축과 인물』, 문화재청, 2008 21~26면에 상세하다.

54) 『정조실록』 권54, 1800년(정조24) 6월 28일, “是日酉時, 上昇遐于昌慶宮之迎春軒.”

55) 『정조실록』 권41, 1794년(정조 18) 12월 25일 기사에 창경궁 옛 홍문관 자리에 있는 서적 인쇄소인 監印所가 정조가 거쳐하는 영춘헌에 가까워 신하들을 갑인소를 경유하여 출입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데서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用丁酉字, 開印于昌慶宮舊弘文館, 遂名其地曰監印所, 後爲鑄字所, 凡編書、印書皆於是. 乙卯以後, 以便近於所御迎春軒, 諸臣引接, 多由監印所出入.”)

56) 正祖, 『弘齋全書』 권182, 『羣書標記4 - 御定4』, <廣載軸四十八卷 - 迎春軒志喜廣載軸>, “丙辰

자궁(慈宮)의 넘치는 경사는 전에 없던 일이니,
 색동옷 입고 헌수연(獻壽筵) 다시 열었네.
 탁 트인 영춘헌에서 영원히 늙지 않으시길,
 해마다 이곳에서 잔치 이어가리라.

椒塗衍慶自光前 綵舞重開獻壽筵
 軒敞迎春春不老 恭將此會又年年⁵⁷⁾

정조는 전구(轉句)에서 ‘영춘헌’의 전각명을 과제(破題)하며 모친 혜경궁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다. ‘탁 트였다’는 표현, 150여 명에 육박하는 신료들이 참여한 헌수연 관련 기록을 고려하면 영춘헌은 넓고 화려한 전각이라 오해할 수 있으나 기실 그렇지 않다.

임금께서 거쳐하고 계시는 영춘헌은 비좁고 축축하며 낮고 협소하여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가 곱절이나 심하게 느껴진다. 또한 들보와 서까래도 낮고 파여 있어, 한바탕 장맛비가 지나가면 지붕이 새어 사방이 다 찢기에 기와 동이와 주전자를 좌우에 늘어놓고 떨어지는 빗물을 받았다. 경연 신하 가운데 어떤 자가 빨리 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자, “온통 새롭게 수리하고자 하면 공역이 너무 커지니, 셀 때를 따라 보수하는 것이 낫겠소.”라고 진교하셨다.⁵⁸⁾

인용한 내용은 정조의 훈어(訓語)를 원임직제학 서용보(原任直提學 徐龍輔)가 1796년(丙辰)에 기록한 것이다. 『정조실록』에는 연신(筵臣)과 정조의 대화가 좀 더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정리당상 이시수(整理堂上 李時秀)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영춘헌은 너무 협소하고 또 비가 많이 새니 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상께서, “이 전각은 이미 있던 옛 건물의 제도를 따르고 거기에 처마를 덧붙인 것이기 때문에,

六月, 慈宮誕辰重回, 予與元子, 奉觴于迎春軒, 仍用洛南前韻以志喜, 賡進外賓四十一人, 參宴諸臣一百四十八人.”

57) 정조, 『홍재전서』 권7, <迎春軒, 奉觴志喜, 用洛南前韻>

58) 정조, 『홍재전서』 권177, 『日得錄 17』, <訓語[四]>, “所御迎春軒, 湫隘卑狹, 每當夏月, 受暑倍甚. 且其椽桷低凹, 一經潦雨, 屋漏四注, 瓦盆銅画, 左右鋪列, 以承涓滴. 筵臣有言宜亟改葺, 教曰: ‘一新改葺, 則事役甚鉅, 隨漏牽補爲好.’”

들보와 서까래가 평평하고 처마에서 빗물이 고여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빗물이 새는 지경에 이른 것은 형제 상 당연한 것이니, 굳이 개수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이시수가 “내일 있을 진찬 역시 이곳에서 마련해야 하니, 도배가 얼룩지고 더러워진 곳은 그대로 둘 수는 없겠습니다.”라고 하니, 상께서 “다른 벽지로 (얼룩진 부분만을) 대략 보수하라.”라고 하셨다.⁵⁹⁾

정조는 실제로 현전하는 영춘헌은 주변의 침전 건물에 비해 소박하고 간결한 구조이며, 기둥의 높이가 낮고 사각형에, 익공 부분을 등글게 하여 외관을 화려하지 않게 꾸몄다고 하였다.⁶⁰⁾ 이미 있었던 옛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 모양을 활용하여 중수하였기에 좁고 낮으며, 비가 새는 것마저도 당연하다 여기고 이를 수리하지 않을 정도로 검약한 궁궐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효의 궁궐’ 이면에 자리한 창경궁의 검약 정신 관련 이야기는 관람객들이 관람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가운데 창경궁 전문 문화해설사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현재 창경궁의 문화 해설사의 동선은 흥화문과 외행각→명정전 일원→문정전 일원→승문당과 함인정 일원→경춘전과 환경전→통명전과 양화당→영춘헌과 집복헌→내전 터 일원(풍기대, 성종태실)→춘당지 일원의 약 1시간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⁶¹⁾ 명정전에 들어서기까지의 이동경로 가운데 창경궁의 영건 과정에서 성종이 견지하고 있던 검약의 의식을 설명하고, 영춘헌에 이르러 정조가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였는지, 그로 인해 각 전각의 규모와 외형이 어떠한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단순히 전각의 명칭과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창경궁의 실제 현장과 부합되는 정보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창경궁이 갖는 문화유산으로서의 독특한 특징과 개성적 풍경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밖에 창경궁은 대비와 같은 왕실의 여성어른을 위한 공간이므로 이곳에서 내명부의 연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창경궁이 낙성된 직후인 1485년에 정희대비의 삼년상을 탈상하였는데, 이날 성종은 창덕궁 인정전에

59) 『정조실록』 권44, 1796년(정조 20) 6월 16일, “整理堂上李時秀奏曰: ‘迎春軒狹窄, 又多雨漏, 不可不改.’ 上曰: ‘此軒, 卽因舊制而附簷, 故椽桷平簷溜緩. 其致滲漏, 勢也. 何必改乎?’ 時秀曰: ‘明日進膳, 當行於此軒, 塗排滲汚處, 不可仍置.’ 上曰: ‘以他紙, 略加補綴.’”

60) 문화재청, 『창경궁: 고궁청소년문화학교교재』, 문화재청, 2001, 25면.

61) 문화재청, 앞의 책, 2012, 17~22면.

서 백관들의 조회를 받으며 음복례를 행하고 창경궁에 계신 인수·안순 두 대비를 위해 이동하여 창경궁 명정전에서 연악(宴樂)을 베풀며 이들을 위로하였다.⁶²⁾ 이후 창경궁은 동지연(冬至宴), 기로연(耆老宴), 회갑연(回甲宴), 가상존호연(加上尊號宴) 등 궁중 연악의 장소로 활용되었으며 주요 무대는 명정전과 통명전이었다.⁶³⁾ 특히 중종은 선달그림에 왕실의 가족들과 함께 처용희(處容戲)를 관람하거나,⁶⁴⁾ 일반 백성들을 위한 양로연을 열기도 하였다.⁶⁵⁾ 1857년(철종8) 봄, 철종이 명경대비(明敬大妃)를 위해 통명전에서 개최한 진찬에 참석하였던 조면호(趙冕鎬, 1803~1887)는 이날의 연회에서 행해진 몽금척(夢金尺), 헌선도(獻仙桃), 포구(拋毬), 처용(處容), 향발(響鉢), 무기(舞鼓), 아박(牙拍), 춘앵전(春鶯轉), 선유악(船遊樂), 검기무(劍器舞) 등 열 가지 정재(呈才)의 명칭과 복식이나 대열 등의 구체적 면모를 10수의 절구로 묘사하기도 하였다.⁶⁶⁾ 이처럼 ‘효’를 명분으로 시행된 궁중 정재를 ‘창경궁의 아침’ 프로그램을 새롭게 보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내전 이야기’의 확대개발과 ‘타게팅(targeting)’ 전략

앞서 살펴보았듯, 창경궁이 경복궁, 창덕궁 등과 가장 변별되는 점은 바로 궁궐 전체의 규모에 비해 왕세자들이 학업을 닦고 신하들을 접견하는 장소로 쓰인 강학용 전각이 유달리 많다는 것이다. 창경궁 북쪽으로 성균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창덕궁을 법궁으로 활용하던 조선 임금들의 특성상, 세자가 문안 들기에 그다지 멀지 않은 창경궁에 모후와 함께 거주하며 세자의 도를 저양(儲養)하기에 좋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2) 『성종실록』 권179, 1485년(성종 16) 5월 12일.

63) 『성종실록』 권183, 1485년(성종 16) 9월 9일; 권197, 1486년(성종 17) 11월 18일; 권211, 1488년(성종 19) 1월 1일 등.

64) 『중종실록』 권60, 1527년(중종 22) 12월 30일, “夜, 三殿及東宮, 觀處容于明政殿. 王子駙馬等入侍.”

65) 『중종실록』 권101, 1543년(중종 38) 9월 5일, “以權停例, 行養老宴于昌慶宮明政殿庭. 良老人命加一資, 賤人各賜綿布二匹, 其不參宴者, 題給酒肉. 老人等飲至大醉, 扶携而出, 恩榮之盛, 視古無比.”

66) 조면호, <呈才十詠【丁巳春, 上進饌于明敬大妃殿下, 命梨園進呈十才, 師樂典女伶肄習, 堂上郎聽監董考勤慢, 所司亦以其物等待. 進饌之所曰通明殿, 舉行之所曰訓局. 東營才之名, 目攝耳灌, 而才之所以才, 堂郎不知講, 唱辭非無所繫, 曼促發於艷喉, 八音間之, 辨別易眩. 賤臣廁名於郎, 乃以絕句十首, 各紀其一, 名之曰呈才十詠, 以識寓祝之誠而榮其名焉.】>

건국당의 남쪽에 작은 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춘궁에 있을 때 강학하던 곳이다. 이름다운 액자로 현관을 걸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그 재실의 이름을 ‘신독(愼獨)’이라 하였다. 대개 ‘은밀함에서 보이지 말고, 그윽함에서 나타나지 말라’라는 데서 취한 것이니, 어찌 우연한 일이리오! 이리하여 명문으로 삼아 경계하고자 하는 뜻을 깃들이노라. 그 사(辭)에

그 가운데 어둠이 있고, 그곳에 홀로 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나, 신령이 바로 너에게 있다. 너 사람 욕심을 막고, 너 하늘의 이치를 넓혀라. 시간이 혹 놓아줄지 몰라도, 성인이 반드시 이를 판단하리. 맑고 밝음이 위에 있고, 빛나고 빛남이 아래에 있다. 알지 못한다 하지마라. 누구를 속일 수 있겠는가? 내 말이 늙지 않았으니, 이로써 대아의 명문을 바꾸어라. 너 원량이어, 지극히 생각하고 지극히 성실하라. 잠시도 소홀히 하지 말라. 항상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 집안 가장 으스스한 곳에 있더라도 근신한다면 네 마땅히 스승되리.⁶⁷⁾

인용한 글은 숙종이 지은 <신독재명(愼獨齋銘)>으로, 이미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서적에 그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신독재가 현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글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지어준 것인지, 그 안에 담긴 부왕(父王)으로서의 숙종의 감정은 어떠한 것인지 등 인물과 사건, 감정을 부각시키지 못함에 따라 문화콘텐츠 개발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창경궁 건국당 동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중정(中正)’이다. 문 밖에 작은 재실(齋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옛날에 독서하던 방이다. 임진년(1712) 이래로는 비어 있다가, 신축년(1721) 내가 임명된 이후 임인(1722)-계묘년(1723)에 다시 이곳을 사용하였고, 갑진년(1724) 겨울이 되어 다시 왕자의 서실(書室)이 되었다. 이듬해인 1725년 봄, 세자가 책봉된 이후, 서연과 소대(召勤) 역시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이 집은 불과 몇 칸의 작은 전각이나, 예전에는 나의 서재였고, 지금은 동궁이 학업 하는 곳이 되었으니,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이에 ‘구용재’라고 편액을 하였다. (….) 잠(箴)을 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중정문 옆 작은 전각, 나의 옛 강당이네. 이에 편액을 걸어 나의 원량(元良)을 가르치노라. 어린이를 가르칠 때 무엇이 최우선인고? 다름 아닌 방정한 몸가짐이리네. ‘구용(九容)’의 뜻은 경전에 상세히 갖추어져 있노라. 학문에 힘쓰면, 지식은 따라서 자라날 터. 의지를 굳게

67)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昌慶宮의 建築과 人物』, 문화재청, 2008, 61~62면.

하고 도리를 실천하면, 네 덕 또한 절로 강해지리라. 이와 같은 정성을 공손히 따라, 마음에 두고 잊지 말라.⁶⁸⁾

인용한 글은 영조가 1725년(영조2), 7세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된 자신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 훗날 眞宗으로 추존)를 위해 『예기』의 '구용(九容)'에서 뜻을 취하여 독서당에 이름을 붙이며 지은 <구용제에 대한 짧은 기문과 잠>이다. 영조는 자신이 어린 시절 사용하던 독서당에서, 왕세자가 된 아들이 대를 이어 학업을 닦고 있는 부전자승(父傳子承)의 상황을 무척이나 감격스러워 하고 있다. 정권초기,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종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영조는 경종독살설에 거명되는 등 위축된 행보를 보이고 있었기에,⁶⁹⁾ 세자를 책봉하고 학업을 닦게 하는 일은 왕실의 권위를 수립하는 중요한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어린 세자에게 『예기』의 어려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방정(方正)'의 두 글자로 의지를 굳게 수립하고 실천해나가면 지혜와 덕업이 저절로 강해질 것이라고 독려하고 있다.⁷⁰⁾

영조는 효장세자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커져, 구용제 외에도 1725년 3월 서연을 위한 또 다른 전각인 '장경각(莊敬閣)'에 편액을 하였다.⁷¹⁾ 장경각은

68) 영조, <九容齋小記并箴>, 『宮闕志』, “昌慶宮建極堂之東, 有一門, 其名曰中正也. 門外又有一小齋, 卽予昔年讀書之室也. 自壬辰以來, 使作閒處矣, 辛丑入闕後, 壬癸兩年, 復用此處. 及甲辰冬, 更爲王子書室, 而益年春, 定儲之後, 青筵召對, 亦於此爲之. 是不過數間一小室, 而前則爲予書齋, 今作春宮講堂, 豈偶然歟! 仍以名齋曰九容, (….) 箴曰: ‘中正小齋, 昔予講堂. 今以揭名, 訓我元良. 教幼何先? 必也正方. 九容之義, 經傳備詳. 勉於學文, 知隨益長. 固志行道, 德又自強. 欽遵此誠, 存心勿忘.’”

69) 『영조실록』 권9, 1726년(영조 2) 2월 15일, “掌令任徵夏上疏 略曰(…) 其一曰, 恢聖志以立大本. 臣聞志者, 萬事之的也, 的之不立, 中不中何論? 凡人有志, 亦莫不貴剛大而賤卑下. 況人君代天理物, 其責愈重, 尤不宜妄自菲薄. 況當一亂之後, 任一治之責者, 豈可循常蹈舊, 東塗西抹而止哉? (….) 嗚呼! 欲堯則堯, 欲桀則桀. 臣誠死罪, 敢問殿下, 將何所安? 臣竊自妄度, 今日之止於如此者, 實由於聖志之不廣, 而聖志之所以不廣者, 亦有由焉. 蓋自辛丑以來, 群凶之縛束我殿下, 無餘地, 凶言悖說, 有不忍聞. 末乃以賊虎爲元勳, 逼殿下莅其盟, 煌煌鐵券, 歷歷銅盤, 臣僚環立, 鬼神森烈. 此時殿下, 踟躕在坐, 何以爲心耶? 此時則殿下固不得自由矣, 及至今日, 誰禁而不能奮發耶? 無乃猶有所沮縮而然也, 臣則以爲殿下, 宜無所沮縮也.”

70) 『승정원일기』 629책, 1726년(영조 2) 12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侍講院文學 鄭彥慶이 <春宮九容齋序箴>을 지어 올렸다고 하나 이 글은 현재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

71) 『승정원일기』 589책, 1725년(영조 1) 3월 19일, “備忘記, 昌慶之東, 有一小齋, 卽孝廟青筵之所也. 今爲春宮開筵之堂, 因其便近, 定於此處, 豈不美歟? 追惟昔年, 又戒今日, 銘其齋曰莊敬閣. 昌德之南, 誠正閣也, 乃聖者御製也, 故參判金雲澤爲宮僚時, 獻其名焉. 今茲莊敬之義, 表記所載, 而程子所愛者也, 其可無因其名而戒文乎? 其令春坊之官, 作序以進, 導我胄子之學.”

효종(孝宗)이 서연을 받았던 소재(小齋)로서 이곳에서 세자가 선왕들의 뜻을 계승하여 『예기』(『표기(表記)』)에서 말한 ‘장중하고 공경하면 날로 강해지고, 안일하고 방자하면 날로 게을러진다.[莊敬日強 安肆日偷]’는 것을 명심하며 학문에 임하기를 바랐다. 1726년 1월 자신이 왕자일 때 읽던 책과 각종 수장품을 창의궁 일한재(彰義宮 日閑齋)에서 가져와 효장세자에게 주기도 하였다.⁷²⁾ 영조가 직접 지은 효장세자의 묘지명에도 관련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효장세자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완호품(翫好品)에 대해서는 무심하여 문진중(問辰鍾)과 같은 시계 역시 서당에 둘 뿐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첫 서연에서 『효경』을 읽었는데, 서연관들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골라낼 만큼 똑똑하였다.⁷³⁾

그러나 당시 구용재와 장경각에서 생각보다 서연이 자주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자필선 임주국(世子弼善 林柱國)은 서연을 마친 뒤 영조가 지은 이 글에 드러난 후손 권면의 곡진한 뜻에 대해 감탄하는 한편, 어린 세자의 서연이 한 달에 몇 차례에 불과하여 <구용재기>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으므로 세자로 하여금 사부와 빈객을 더욱 자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상소하기도 하였다.⁷⁴⁾ 대사간 정익형(鄭亨益) 역시 장

72) 황정연, 『조선시대 궁중서화수장의 실제』,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2005, 88~96면 참조. 황정연에 의하면 1726년에 필사된 『日閑齋所在冊置簿』에 그 서적과 수장품 등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청구기호: K2-4917)가 유일본이다. 『일한 재소재책치부』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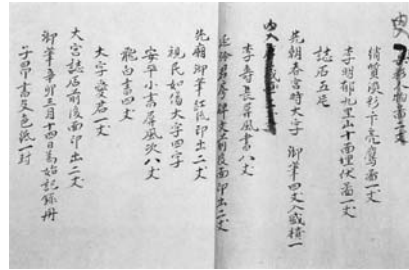
73) 영조, <有明朝鮮國孝章世子墓誌>, 『[孝章世子]喪變時臚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奎 13009, 筆寫本, 1729년, 侍講院(朝鮮) 編), “凡諸旣好, 其無潛心, 曰: ‘雖可觀者, 一見足也. 何必心着?’ 自雲觀進問辰鍾, 此亦一覽而已, 置諸書堂矣. (….) 畢講孝經, 殿講于予. 予問: ‘孝者, 何事?’ 對曰: ‘事親盡道者, 孝矣.’ 其得要旨若此也. 於甯筵召對, 宮官所達者, 其或差焉, 或所陳者前所講者, 則及夫講畢, 問于左右曰: ‘前後宮官之言, 其何相違? 且所陳者, 非孝經某章, 小學某篇所在者耶?’ 其潛心聽焉, 常時留意, 可知也.” 한편 이 글에는 효장세자에 대한 태몽[夢見瑞鳥集于室, 復見金龜焉]과 昌慶宮 進修堂에서 죽음을 맞이한 과정을 비롯하여 그에 대한 영조의 애끓는 부정(父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또한 영조는 1728년 효장세자가 사망한 이후 『효장세자연보(孝章世子年譜)』를 직접 만들기도 하였다. 이 연보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청구기호: BC古朝鮮58-가5)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청구기호: 奎7123)에 소장되어 있다.

74) 『승정원일기』 611책, 1726년(영조 2) 2월 28일, “弼善林柱國上疏曰, 伏以, 臣本農學, 久忝宮僚, 累入書筵, 仰瞻元良, 玉質岐嶷, 睿度夙成, 臣欣忭之極, 倍切延頸之忱. 仍念以此素質之美, 益加學問之工, 則殿下其所謂文王之無憂者, 而我東方太平萬世之基, 實在於此. 及伏見命示九容齋記與箴, 則其辭約而精, 其義廣而大, 近而行動容貌之間, 遠而中正建極之道, 開示分明, 勉戒丁寧, 臣於是不能欽仰我殿下典學之工, 貽燕之謨, 迥出百王也. 自古人君, 孰不欲儲嗣之必

경각의 가르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므로 영조에게 수신과 제가의 공부에 먼저 진력하여 몸소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⁷⁵⁾



[그림1] 규장각 소장 『孝章世子年譜』



[그림2] 장서각 소장 『日閑齋所在冊置簿』

1728년 효장세자가 사망하고 8년 뒤인 1736년(영조12) 3월 15일,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가 창경궁 양정각(養正閣)에서 세자 책봉을 받았다.⁷⁶⁾

저승전 동쪽, 경극당 남쪽에 전각이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양정각이다. ‘양장’의 뜻은 바로 어린아이를 바른 도로써 기른다는 뜻이다. 저승전은 왕자가 거처하는 전각이므로 문 이름과 당호도 모두 왕자의 거처라는 데 유의하고 지었으니, 그 가운데 이 전각은 그러한 의미가 더욱 깊다 하겠다. 대개 『대학』의 가르침은 반드시 『소학』에서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물을 뿌려 마당을 청소하는 작은 예절에 불과하니, 이는 일상의 가까운 일에서 원대하고 심오한 일에 이르는 뜻을 담은 것이다. 만약 성현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 진실로 마음을 바르게 갖고자 하면, 의당 먼저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해야 하니,

賢·而漢·唐以來，輔養失宜，一律滔滔，蓋其自修之道，不及三代故也。殿下觀三代之君，其自修者，何如也？(…) 顧今輔養之道，一日爲急，而書筵開講，一朔不過數次，雖或開講，一番音釋，旋即退出，師傅·賓客，接見甚罕。”

75) 『승정원일기』 591책, 1725년(영조 1) 4월 22일, “大司諫鄭亨益疏曰：(…) 夫勸講輔導之任，雖在賓師，而貽燕翼子之責，是在殿下矣。向日殿下，特以莊敬二字，揭名於甯筵之堂，是殿下以體驗於身心者，教誨於儲嗣也。嗚呼！此誠堯舜禹相傳心法，而不會出於三代以後帝王之口者，豈不盛歟，豈不盛歟？然當在稚貌之年，其親切誘掖之道，無過於家庭之訓，殿下若於燕閣之中，言動事爲，無一不出於光明正大，則東宮之耳濡目染，薰陶成就，其可量耶？伏願聖上，先盡修齊之工，以爲標的之方，而常使儲宮，不離左右，事事而俾得師法，言言而俾得承受，毋令與婦寺輩，有狎戲之弊焉。”

76) 이날의 세자 책봉례의 절차와 거행 과정은 『景慕宮儀軌』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비록 순수한 본성과 탁월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이런 공부에 대해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구슬을 모래 속에 던져두고 거울을 버려두고 닦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 (...) 내가 왕위를 이은 지 12년째이다. 병진년 봄 3월 15일에 원랑을 책봉하였다. 자내(自內)로 책봉례를 거행할 때는 반드시 이 전각에서 하였더라. (...) 명(銘)에 이르기를, “우리 동방을 돌보고 도우시니, 하나 뿐인 왕자라다. 잘 보호하고 잘 양육하여, 아름다운 상서로 보답 받았도다.”⁷⁷⁾

잘 알려져 있듯 사도세자는 1735년 1월, 창경궁 집복헌에서 탄생하였다. 효장세자의 사망 후 원자가 없었던 것에 대해 염려하던 영조는 같은 해 7월에 원자보양관을 임명하고 강학청을 설치하는 한편 창경궁 경극당에서 상견례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보양관들에게 『효경』을 등초하여 늘 원자의 곁에서 이를 암송하게 할 만큼 하나 뿐인 왕자의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⁷⁸⁾ 영조는 원자뿐 아니라 세손인 정조의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공목합은 경춘전 동쪽에 위치한 전각으로, 1757년 우리 선대왕이신 영조대왕께서 거려(필자주: 영조비 정성왕후의 상중이었다.)하실 때 신하들을 접견하던 곳이었다. (...) 1759년 내가 세손에 책봉된 이후로 항상 공목합에 거처하였는데, 합 북쪽에 위치한 반 칸짜리 작은 협실이 바로 내가 독서하던 곳이었다. 그 협실에서 책을 읽다보면 종종 밤을 새기도 했는데, 선대왕께서 언젠가 하교하시기를, “네 학문이 자리를 잡았느냐? 네가 물건에 대해서는 애호하지 않고 오직 책만을 좋아하니, 그 정도로 담박하면 되었다.” 하시기에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담연와(澹然窩)’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시강원의 빈객에게 <담연와기(澹然窩記)>를 쓰도록 하여 걸어 두었는데, 그것은 그러한 하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 전각을 보니 마치 어제

77) 영조, <養正閣銘并小序>, 『공필지』, “儲承之東, 敬極之南, 有堂, 名曰養正閣也. 養正之意, 卽蒙養以正之意也. 儲承既春宮所居之殿, 而門名堂號皆有意於春邸者, 而至於此閣, 其意益深也哉. 大抵大學之教, 必自小學始, 而其初不過灑掃等節也. 蓋自近而及遠, 自淺而入深者矣. 其若欲爲聖欲爲賢, 其功必自幼沖時. (...) 苟若正心, 宜先蒙養, 雖純然之性, 超美之質者, 若不此工上著力, 是投珠於沙石, 拋鏡而不磨者也, 豈不惜哉? (...) 今予嗣服十二年, 歲丙辰春三月十五日, 定冊元良也, 自內受責, 必於此堂行焉 (中略) 銘曰: ‘瞻佑我東, 一有元良. 善保善養, 乃答休祥.’”

78) 정조, <顯隆園行狀>, 『홍재전서』 권18, “先君諱某, 字某, 肅宗元孝大王之孫, 英宗顯孝大王之子, 曠嬪李氏所誕也. 謹稽行錄曰: 自誕前數日, 有星雲之瑞. 及誕, 日表照人, 聲音如洪鐘. 英廟喜甚, 謂大臣曰: ‘三宗血脈將絕, 今則有歸拜列祖之顏矣.’ 命遵肅廟庚午故事, 坤殿取以子之, 定號爲元子, 卽乙卯正月二十一日也, 告廟社, 大赦中外, 睿姿岐嶷. 未逾數月, 已如二三歲兒. 命諸臣入瞻, 仍令近侍, 書誠敬二字, 舉而示之, 諦視若謹受者. 秋, 行輔養官相見禮, 命鈔孝經章句, 使左右, 日誦習于前. 丙辰, 立爲世子, 以三月十五日, 備儀衛, 行冊禮于養正閣.”

일처럼 역력한데, 벌써 수십 년 전 일이 되고 말았다. 그 옛날을 생각하노라면 마음이 서글퍼진다.⁷⁹⁾

공목함은 그간 사도세자와 관련된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나 기실 영조와 더욱 깊은 관련이 있다.⁸⁰⁾ 1783년에 정조가 지은 이 글을 통해 공목함의 북쪽에 ‘담연와’라는 작은 독서당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적을 좋아하던 세손을 가상하게 여기던 영조의 면모를 유추할 수 있다.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을 현저하게 드러내는 이상의 전각들은 오늘날 한 곳도 남아있지 않으며, 복원 되어 있지도 않다. 그 가운데 공목함은 복원 가능한 고증 자료 등이 풍부하게 남아있어 복원의 우선 대상이나 아직까지 복원되지는 않았다.⁸¹⁾ 그러나 이 전각들을 통해서만이 ‘내전의 다양한 이야기가 살아 있는 궁궐’이라는 장소 정체성을 강화할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 궁궐에서의 숙박 체험 가운데 ‘왕세자 교육’이 일부 포함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스토리의 확대 개발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스토리를 문화·관광콘텐츠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에 대한 ‘타게팅(targeting)’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강학과 저양의 공간이라는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의 여성 중심의 해설·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 체험 코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효경』을 읽는 왕세자 수업, 전각기를 모방하여 자식에게 당부하는 글을 적는 체험의 시간 등을 통해 가족단위의 관광객 유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련 문화제와의 연계를 통한 기획전시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제청은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 향유’라는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문화유

79) 정조, <恭默閣記 癸卯>, 『홍재전서』 권14, “至恭默閣, 閣在景春殿之東, 卽我先大王丁丑居廬時, 晉接之所也. (….) 自己卯冊世孫以後, 恒居此閣, 而閣北小夾室半間, 卽予讀書之所也. 入此室讀書, 或至竟夜, 先大王嘗教小子, 若曰: ‘爾學入定乎? 爾於物, 無所好, 所好惟書, 澹泊如此, 可自號曰澹然.’ 其後要宮賓, 撰澹然窩記, 揭之. 蓋因有是教也, 今見此室, 歷歷如昨, 而居然數十年間事也, 撫念疇昔, 心焉愴傷.”

80) 한영우 선생님은 “정조도 세손 때 아버지를 따라 공목함에 있으면서 서쪽에 붙어있는 협실에서 독서를 하였다고 <御製恭默閣記>에서 술회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영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영우, 앞의 책, 2003, 187면.

81) 문화제청, 『복원정비 기본계획』,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2010』, 문화제청, 2010, 213~214면.

산 활용프로그램 및 교육 진흥을 그 첫 번째 전략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⁸²⁾ 앞서 영조가 효장세자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담아 지은 작품인 <구용제기>와 <양정각기>의 사례에서 보았듯, 창경궁과 관련된 의례, 『효장세자연보』와 같은 귀중한 자료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일한재소재책치부』와 같은 유일본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⁸³⁾ 『일한재소재책치부』는 장서각에 전시되어 있는 만큼,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연계 기획전시 개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랜드마크의 복원과 자연 경관 테마 연계

‘효의 궁궐’과 ‘내전의 다양한 이야기가 살아있는 궁궐’이 현전하는 창경궁 전각을 바탕으로 수립된 장소 정체성이라면, 이 절에서 제언할 것은 현전하지 않는 전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테마 연계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다. 앞서 창경궁 내 동궁전 권역이 경복궁, 창덕궁의 그것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바탕으로 관람객들의 지속적 흥미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듯, 창경궁의 자연 경관 역시 다른 궁궐과 다른 특징을 지녀야지만 관람객들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을 터이다.

경복궁의 경회루(慶會樓), 창덕궁의 후원(後苑) 등은 궁궐 내의 자연경관과 전각이 조화를 이루어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이지만 창경궁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조성된 대운실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전각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창경궁은 장소 정체성과 관련된 중심적 공간인 랜드마크가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절에서는 창경궁의 랜드마크로 내세울 만한 전각으로 ‘환취정’을 제시하고 이를 우선 복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종은 창경궁에 왕실 어른들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자신의 휴식을 위한 공간 역시 마련하는데, 환취정(環翠亭)이 그것이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

82) 문화재청, 앞의 책, 2018, 14면.

83) 장서각은 1911년 일본 총독부가 창경궁 자경전 터에 조성한 도서관 겸 박물관이었는데, 1980년대에 창경궁이 복원되면서 철거되고 소장 도서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전한 것이다. 이창근, 앞의 논문, 19~20면.

1484년 서거정이 창경궁의 전각과 문의 명칭을 지을 때 환취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취정은 1484년 2월 11일 이후부터 김종직이 기문을 지어 바친 7월 5일 사이에 완공된 건물로 보인다. 성종은 환취정의 완공 이후, 서거정, 김종직, 어세겸, 홍귀달, 김훈, 손순효 등 당대 최고의 문신들에게 기문을 찬진할 것을 명하였는데, 그 가운데 김종직의 기문이 선택되었으며 실제 환취정에 그것이 걸려있었던 듯하다.⁸⁴⁾

창경궁의 후원에 환취정이라는 새 정자가 있다. 환취정은 바로 통명전의 북쪽 모퉁이에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산마루가 좌우로 가로질러 펼쳐진 형세인데다, 장송 만 그루가 빙 둘러 서 있다. 또한 뾰뾰하게 자라나는 대나무 수천 그루를 심어 그 틈새를 매우도록 했다. 정자 앞으로는 대궐이 닿아있으니, 건물의 배치가 들쭉날쭉하고 비늘처럼 뾰뾰한 원앙와와 아로새겨진 단청, 띠풀을 갈아놓은 섬돌과 이끼 낀 벽돌들이 서로 배가하여 푸른 산기운을 이루고 있다. 가까운 데에서부터 먼 곳을 바라보면, 높은 궁의 담장 밖에는 저자거리가 펼쳐져 있고, 저자거리 너머에는 성 외곽이 있으며, 그 외곽 너머에는 바위산이 있다. 남산의 구름과 동교의 수풀이 푸른빛을 모아다 발라놓은 듯 이 정자의 난간 아래로 모여 들어 다투어 기이한 모습을 드러내며 천변만화하니, 이것이 바로 이 정자가 이와 같은 편명을 얻게 된 까닭이다.

그러나 임금께서 이곳을 휴식하는 장소로 삼으신 까닭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이다. 이 정자는 막혀있는 구중궁궐의 대문을 경유하고 깊은 옥침과 연결되어 있어, 조용하고 그윽하며 고즈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환하고 시원하다. (...) 전하께서 조회에서 물러나 한가하게 쉬시는 여가에는 종종 발걸음을 옮기시어 이 정자에 올라가시는데, 정전의 의장은 일체 물리시고는 하후처럼 소박한 옷을 입고 광무제처럼 두건을 비스듬히 쓰신 채 정신을 맑고 편안하게 식히시며 도와 일체가 되신다. 화창한 봄날, 초목이 만개할 때가 되면 천지가 만물을 낳아주는 인에 감동하시어 “노쇠한 병자나 홀로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굶주리지 않게 할꼬?”하시며,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고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이 오면 순임금의 노래인 해운(解纜)조를 읊으시며 “이 골짜기에 가득한 시원한 그늘을 어떻게 하면 사방에 골고루 나누어줄꼬?”하신다. 낙엽 지는

84) 『연산군일기』 권30, 1498년(연산 4) 7월 29일 기사에 따르면, 성종이 김종직이 지은 <환취정기>를 처마 사이[櫺間]에 걸게 하였는데, 이후 김종직에게 원한을 품은 유자광이 그것마저 철거할 것을 청하였다고 한다. “成宗嘗命宗直, 撰環翠亭記, 掛在櫺間, 竝請撤之, 所以報咸陽之怨也.”

가을이 되어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을 때에는 “우리 백성들에게 거두는 십일의 세금이 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시며, 겨울의 신이 눈을 하얗게 날리고 혹독한 추위가 갖옷을 파고드는 겨울이면 “손이 뜨고 동상에 걸린 우리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다. 이처럼 사시사철의 경물이 일단 성상의 눈을 거치면 모두 인정을 펴는 재료가 된다.⁸⁵⁾

인용한 글은 김중직의 <환취정기>의 일부이다. 김중직은 서두에서 북한산, 백악산, 낙산(駱山), 응봉(鷹峯) 등 창덕궁-창경궁을 둘러싼 자연환경을 묘사하면서 ‘翠’, ‘靑’ 등의 시각적 심상을 매우 강조하였으며,⁸⁶⁾ 이를 통해 환취정의 입지는 창경궁 근처의 모든 풍경이 수렴되는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훗날 정조가 이 환취정의 우측에 혜경궁 홍씨를 위한 전각인 자경전을 건립한 것 역시 수려한 조망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⁸⁷⁾ 창경궁은 특히 담장이 매우 낮았는데, 이곳에 대비들이 거주함에 따라 대나무를 뺄뺄하게 심어 처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었다고 서술하였다.

김중직은 성종이 퇴정하여 환취정에 올라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묘사한 뒤, 임금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서 ‘환취정’이 선택된 까닭이 비단 이곳이 도성 일대의 승경을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정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환취정의 입지는 다름 아닌 궁궐 너머 저자거리 등 도성 안팎에서 왕화(王化)가 구현되는 풍경을 모두 관조할 수 있으며, 휴식의 시간

85) 김중직, <環翠亭記>, 『점필재집』문집 권2, “昌慶宮之後苑, 有新亭曰環翠. 直通明殿之北奧, 岡巒體勢, 旁橫側展, 長松萬株, 環擁而立. 又植密竹數千挺, 以補其隙. 前臨大內, 結構參差, 鴛鱗碧鏤, 莎階苔甃, 相助爲翠微之氣. 自邇而遠, 則崇墉之外有闌闔, 闌闔之外有郭郭, 郭郭之外有巖岫. 終南之烟雲, 東郊之草樹, 攢靑林綠, 爭效奇於欄楯之下者, 千萬其狀, 此亭之所以得名也. 然其所以爲人主燕息之所, 則實在彼而不在是焉. 是亭也, 歷九闔之阻, 聯六寢之邃, 幽詭寥闔, 高明爽塏. (….) 退朝清譙之餘, 往往布玉趾以登, 法宮之仗, 一切屏去, 服夏后之衣, 岸光武之績, 怡神澄慮, 與道爲謀. 至若青陽和暢, 草木敷榮, 則感乾坤生物之仁, 而“疲癯鰥寡, 何以無飢?”; 薰風南來, 畏景燦空, 則咏帝舜解慍之操, 而“滿壑清陰, 何以均施?”; 黃落在侯, 萬寶告成, 則曰: “吾民什一之斂, 不可過制也.”; 滕六屑瓊, 沍氣襲裘, 則曰: “吾民皸癩之肌, 不可更勞也.” 凡四時之景, 一經于宸眼者, 皆取以爲發政施仁之資.” 번역은 줄고, 『金宗直 산문 연구: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83~285면에서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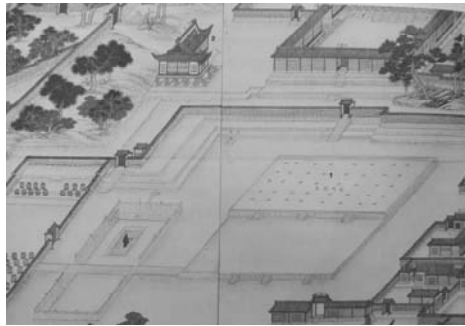
86) 창경궁을 둘러싼 산계에 대해서는 박재희, 앞의 논문, 2017, 100~101면 참고.

87) 『궁궐지』에 따르면 자경전은 1777년 정조가 건립하여 혜경궁을 봉양하였다고 하였다. 순조가 지은 <자경전기(慈慶殿記)>를 통해 구체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순조, <자경전기>, 『純齋稿』 권3, “昌慶之宮有慈慶殿, 王大妃殿所御也. 環翠之亭在其左, 養和之堂在其右, 景春之殿在其前, 禁苑在其後, 其尊嚴殆與法殿同也.”

조차도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희구하며 노심초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성종은 이곳에서 자신의 형인 월산대군 등 종친과 함께 잔치를 즐기거나 활을 쏘는 등,⁸⁸⁾ 휴식과 연회의 공간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環翠亭圖>⁸⁹⁾



[그림4] <동국도> 중 환취정과 자경전⁹⁰⁾

창경궁과 관련한 시문 가운데, 특정 전각의 위치와 원-근경의 조망 등을 이처럼 심상성(imageability)⁹¹⁾이 짙게 묘사한 글은 없다. 환취정은 조선전기에 지어져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남아있던 정자라는 점 외에도, 이 기문을 통해 주변 전각들과의 조화 뿐 아니라 창경궁 담장 너머 저자거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복궁 경회루, 창덕궁 비원 등의 기능을 하는 창경궁 내 랜드마크로 자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88) 『성종실록』 권195, 1486년(성종 17) 9월 17일, “上宴宗親于環翠亭, 月山大君嬪等入侍, 觀射小的.”

89) 이 그림은 1827년에 간행된 『慈慶殿進爵整禮儀軌』(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奎 14535-v.1-2)에 수록된 것이며, 해당도서는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90) 한영우, 사진 김대벽, 앞의 책, 2003, 192면에서 재인용.

91) ‘심상성’이란 한 개인이 어떤 장소를 접할 때, 머릿속에 그 장소의 모습을 읽어 들이고 떠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에드워드 렐프 저, 앞의 책, 2008, 88~89면. 심상성은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지만, 특정 장소에 대해 다른 장소와 변별되는 그 장소만의 독특한 상징적 특징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있다.

일제강점기에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위상이 격하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창경궁의 비인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⁹²⁾ 이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수립한 창경궁 복원정비 우선순위의 첫 번째 기준은 전각의 크기와 칸수, 위치, 방향 등 정확한 문헌적·도면적(圖面的) 고증이 가능한지 여부이고, 두 번째 기준은 ‘활용 가능한 이야기의 유무’이다. ‘활용 가능한 이야기 유무’란, ‘고립되고 박제화 된 문화유산에서 벗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오늘날의 후손들과 호흡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전각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⁹³⁾는 것이다.⁹⁴⁾

현재 환취정은 복원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복원 기준에 따르면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취정은 그림3과 그림4처럼 그 대강의 형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고, 관련된 정치적 사건이나 인물이 적다 하더라도 창경궁만의 독특한 심상성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건물이므로 우선 복원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환취정이 복원된다는 전제 하에, 창경궁 대운실 권역에서 펼쳐지는 야간개장 테마와의 연계를 통한 창경궁 본연의 자연 경관 회복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2) 문화재청에서는 창경궁이 도성의 궁궐 중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이, 가장 심하게 변형·훼손되었으며,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창경원’에 조성된 동물원과 식물원 등을 철거하고 주요 전각을 보원하였으나 여전히 침전 주변 부속건물, 후원 권역 등이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까지도 대중들에게 창경궁의 위상은 경복궁, 창덕궁 등의 다른 궁궐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 궁궐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조계모, 『창경궁의 배치와 건축』,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2010』, 문화재청, 2010, 43면.

93) 문화재청, 『복원의 기준시기와 범위』, 위의 책, 2010, 149면.

94) 문화재청, 위의 책, 2010, 150면. 그 예시로 든 것이 바로 ‘자경전’이다. 정조가 생모 혜경궁 홍씨를 위해 지은 전각으로 『한중록』과 같은 기록문화, 순조대에 벌어진 각종 진연을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밖에 혜경궁홍씨의 회갑잔치가 열린 경춘전 등을 복원하면 궁이 콘텐츠라 명명하지 않더라도 향후 복원될 창경궁의 전각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였다.

IV. 맺음말

중요한 장소를 복원하고 재현하는 과정이 형태적 측면의 복원을 중심으로 할 뿐, 그 속에 담긴 장소의 의미와 상징을 포함한 장소 정체성을 조명하는 데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과 같이⁹⁵⁾ 의미와 상징은 그 장소 정체성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본고는 창경궁 관련 시문을 통해 그 의미와 상징을 재해석함으로써 ‘효의 궁궐’ 그리고 ‘내전의 다양한 이야기가 살아있는 궁궐’이라는 장소 정체성을 강화할 구체적 스토리텔링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즉, ‘효의 궁궐’이라는 장소성 이면에 자리한 주제의식인 ‘검약’, 그리고 세자의 강학과 관련한 이야기의 소재의 발굴, 랜드마크의 복원과 연계되는 세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창경궁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방안을 거칠게나마 제안하였다. 검약과 강학, 자연경관은 창경궁이 아닌 다른 궁궐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나, 오직 창경궁에서 적극 재발견해야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보완·강화한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은 첫째, 문화해설사의 보다 전문화된 해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현재 창경궁 문화 해설사의 안내 정보는 전각의 명칭과 유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창경궁의 실제 현장과 부합되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창경궁이 갖는 문화유산으로서의 독특한 특징과 개성적 풍경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개발된 스토리에 부합하는 관람객의 ‘타게팅(targeting)’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학과 저양의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의 궁궐 숙박 프로그램, 일상 체험 프로그램에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 체험 코스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2012년에 새터민,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하여 궁궐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이 큰 호평을 받았던 사례가 있으므로 가족, 학생, 외국인, 성인 등 관람객들의 요구와 수준에 따른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겠으나, 2018년 문화재청에서 수립한 성과목표 가운데 하나인 ‘참여하

95) 전중환, 서민철, 장의선, 박승규 저, 『장소와 경관을 새롭게 읽기』, 앞의 책, 2017, 262~264면.

며 즐기는 문화유산 보호활동'의 기조 안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전략이 아닌가 한다.⁹⁶⁾ 아울러 관련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유관 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기획전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창경궁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 전각을 복원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궁궐 프로그램 가운데 관람객들의 가장 높은 선호를 받고 있는 다른 자연 경관 테마, 혹은 창덕궁 등 인접 궁궐과의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각의 복원은 문화재 보존 내지 영향성, 예산 등의 실질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재건을 당장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⁹⁷⁾

이를 위한 시론(試論)으로 넷째, 증강현실(AR)을 통한 미복원 전각 코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왕세자 강학의 전각과 환취정 등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주요 전각들은 미복원 상태이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재청은 '4차 산업혁명과 문화유산의 융·복합 활용'을 위해 기술 혁명시대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며 문화유산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문화유산 3D 포털 구축을 추진한다고 하였다.⁹⁸⁾ 일실된 전각에 대해 AR 등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2013년 문화재청에서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손안의 덕수궁'을 통해 이미 그 효과와 관람객들의 호응이 검증된 바 있다. '내손안의 덕수궁' 어플은 1600여 가지의 덕수궁 관련 안내 자료를 증강현실(AR) 기술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3D콘텐츠로 구현하여 2013년 1월에 출시하였다. 관광안내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축되어 지도, 사진, 설명자료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통해 현존하지 않은 건축물의 옛 모습까지 3D 이미지로 재현되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⁹⁹⁾ 훼손된 문화재를 3D로 재현하고, 과거

96) 문화재청, <2018년 업무 추진 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018.1, 문화재청, 6면.

97) 2018년도 고궁의 원형 지속 회복-일제강점기에 변형·훼손된 고궁과 조선왕릉 원형 회복으로 정체성 확립 및 관광자원화-사업 가운데 경복궁과 덕수궁은 포함되어 있으나 창경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화재청, 위의 책, 2018, 7면, 11면. 이에 따르면 2018년도 복원 정비 대상은 경복궁 흥복전, 덕수궁 돈덕전이며, 그밖에 광명문 이전, 선원전 정비, 사직단의 복원·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98) 문화재청, 위의 책, 2018, 21면.

99) 박재희, 앞의 논문, 2017, 210~211면.

의 사진과 현재 건물을 합성하여 당시의 시대적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입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문화재를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¹⁰⁰⁾

그런데 이처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국비에 비해 이용률(성과)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에서 개발한 ‘내손안의 ○○궁’ 시리즈 7개가 전량 폐기처분되었다. 훌륭한 콘텐츠 구축 이후 ‘성과율’이라는 논리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3과 그림4를 통해 보았듯, 환취정은 의궤와 동궐도에 구체적인 위치와 건물의 모양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VR을 통해 충분히 그 모습을 재현하고 이처럼 3D로 복원한 건물의 경우를 별도의 코스로 만들거나 복원 작업의 우선순위를 높임으로서 창경궁의 장소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¹⁰¹⁾

이와 같은 문화·관광콘텐츠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바로 한문학이다. 한문학 원콘텐츠에 대한 주목과 섬세한 의미부여가 없이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은 난망하다.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 본고에서 시도한 전각별 시문의 망라와 같이, 궁궐의 각 전각에 대한 시문, 의궤와 실록 등 역사 기록, 그림 등을 갈무리하여 궁궐 아카이브를 축적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궁궐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은 문화재청이 2018년도에 수립한 ‘문화유산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에도 일정부분 부합하는 것이다.¹⁰²⁾ 본고는 한문학의 문화콘텐츠 활용 가능성을 초탐하는 시도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나 부족한 부분은 문제의식과 연구방법론을 조금 더 가다듬어 후고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100) 오성환, 김기덕,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한 덕수궁 관광안내서비스 구축방안 연구』, 『문화재』 제60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35~39면.

101) 본고는 闕內各司 등 신하들의 공간에 대해서는 지면 제약으로 인해 미처 고구하지 못하였다.

102) 문화재청, <2018년 업무 추진 방향>, 『2018년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018.1, 문화재청, 20면.

참고문헌

1. 자료

- 『궁궐지』 2,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6.
『日閑齋所在冊置簿』(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청구기호: K2-4917, DB).
『慈慶殿進爵整禮儀軌』(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奎14535-v.1-2, DB).
『[孝章世子]喪變時臚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奎 13009, DB).
『孝章世子年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청구기호: 奎7123, DB).

문화재청(<http://www.cha.or.kr>).

한국고전번역원 DB.

승정원일기 DB.

조선왕조실록 DB.

한국문화재단(<https://www.chf.or.kr>.)

2. 단행본

- 류지석 외,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소명출판, 2013.
문화재관리국, 『昌慶宮-發掘調査報告書』, 1985(DB).
_____, 『上樑文集』, 1991(DB).
문화재청, 『2010년 문화재청 주요 업무계획』, 2009(DB).
_____,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2010』, 2010(DB).
_____, 『창경궁: 고궁 청소년문화학교교재』, 2001(DB).
_____, 『살아 숨쉬는 4대궁 및 종묘 건설링 보고서-4대궁 중장기 홍보 마스터플랜』, 인포마스터, 2011(DB).
_____, 『2011년 살아 숨쉬는 4대궁·종묘 만들기 사업 모니터링 용역 결과보고서』,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1(DB).
_____,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 2016(DB).
_____,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017(DB).
_____,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 2018.1(DB).
_____,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018.1(DB).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도심속의 자연 그리고 창경궁』, 문화재청, 2008.12.
_____, 『昌慶宮의 建築과 人物』, 문화재청, 2008.
_____, 『효의 궁궐 창경궁』, 국제문화사, 2008.12.
앙리 르페브르 저,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 에드워드 텔프 저,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2쇄), 논형, 2008.
- 이광호, 김영봉, 정호훈, 김채식 등, 『궁궐의 현판과 주련』2 창덕궁·창경궁(2006년 문화재청의 학술 조사 연구 용역), 수류산방, 2007.
- 이-푸 투안 저, 구동희,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개정2쇄), 대운, 2011.
- 전중환, 서민철, 장의선, 박승규 저, 『인문지리학의 시선』(개정3판), 사회평론, 2017.
- 한영우, 『昌德宮과 昌慶宮』, 열화당·효형출판, 2003.

3. 논문

- 구슬아, 『金宗直 산문 연구: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333면.
- 박재희, 『서울 궁궐의 풍수지리 분석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230면.
- 송희은, 『창경궁의 장소성과 상징성의 사회적 재구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100면.
- 신동훈, 『민속과 문화원형, 그리고 콘텐츠 - 문화산업 시대, 민속학자의 자리』, 『한국민속학』 제43집, 한국민속학회, 2006, 255~283면.
- 심경호, 『상량문의 문학성 시론』, 『한문학보』 제20집, 우리한문학회, 2009, 319~353면.
- 안장리, 『영조(英祖) 궁궐 인식의 특징』, 『정신문화』 제104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33~68면.
- 오성환, 김기덕,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한 덕수궁 관광안내서비스 구축방안 연구』, 『문화재』 제60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26~45면.
- 이창근, 『궁궐 종묘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198면.
- 전명숙,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권 2호, 한국콘텐츠학회, 2007, 777~780면.
- 황정연, 『조선시대 궁중서화수장의 실체』,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2005, 55~110면.

접수일자: 2018. 9. 30.
심사기간: 2018. 10. 1.~2018. 11. 10.
게재결정: 2018. 11. 10.

The Place Identity of the Royal Palace Changgyeonggung(昌慶宮) and the Possibility to Use Cultural Contents

Koo, Seul-ah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modernization of Chinese literature through poetry related to the palace, which is a result of combining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with high-end culture.

Among the four palaces[Gyeongbokgung(景福宮), Changdeokgung(昌德宮), Changgyeonggung(昌慶宮), Deoksugung(德壽宮)] of Chosun, the Changgyeonggung has the least number of visitors. So I analyzed the poetry of Changgyeonggung Palace. Changgyeonggung has a place identity called 'Space for filial piety(孝)' and 'A palace where various stories live'. In this paper, I explored the new cultural identity of Changgyeonggung.

The results are as follow.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 that Changgyeonggung is distinguished from other palaces is that first, it is a palace of frank size. Second, it is a space where the prince studies the prince's discipline before he succeeds the throne. Third, The landmark in Changgyeonggung can be restored first by linking it with other natural scenery themes, for example, Hwanchijeong(環翠亭). The cultural identity of Changgyeonggung is complemented with the touristic and cultural contents of Changgyeonggung such as strengthening the education of the commentator, developing a detailed tour course, preparing an experience course in which the father and the child participate together, as exhibits linked with cultural properties and possibility of restoration through Augmented Reality(AR).

keywords: Changgyeonggung(昌慶宮), Cultural Contents, Touristic Contents, Identity of Place, Classical Chinese Literature